

# 여서시대

양희은·김일중입니다

2월  
2024



MBC 라디오  
매일 아침  
09:05~11:00

## 행복을 찾는 사람들 1

IBK기업은행 여의도FC지점 거래고객  
한국의료재단 김효상 원장

## 행복을 찾는 사람들 2

IBK기업은행 성수동지점 거래고객  
서안캠텍(주) 이승준 대표



IBK 기업은행

실력 있는

기업들이

자신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 가장 진화된 금융으로 기업을 앞으로

ESG 기업공개, 경영 전반의 맞춤형 컨설팅

**IBK 컨설팅**

기업과 인재를 연결하는

**i-ONE JOB**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M&A 공개주식지원

**M&A 생태계 조성**

본업과 관련 없는 금융·비금융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제2금융권 관련 제도를 제정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바나 관련해서 바나·다·해가 포함된 금융상품을 받지 않습니다. 본업과 관련 없는 금융·비금융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제2금융권 관련 제도를 제정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바나 관련해서 바나·다·해가 포함된 금융상품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1577-1000, e-mail: kbnet@ibk.co.kr



- 04 여성시대 특집  
사랑의 난방비
- 09 이달의 편지  
‘축의금 안 받기가 더 힘들어’ 외
- 72 행복을 찾는 사람들 1  
한국의료재단 김효상 원장
- 76 행복을 찾는 사람들 2  
시안캠텍(주) 이승준 대표
- 81 코너 속 편지  
‘나의 요리 선생님’ 외
- 110 양희은의 스튜디오에서  
마음으로 하는 이야기
- 113 김일중의 스튜디오에서  
부자 여행

IBK기업은행 협찬의 월간 여성시대는 작지만 큰 감동을 전하고자 합니다.  
매월 10일 IBK기업은행에서 무료로 배포하며, 이웃과 함께 보면 감동이 2배로 늘어납니다.

## 여성시대

발행일 2024년 2월 10일 발행인 (주)문화방송 대표이사 안형준  
 등록번호 라 - 5413 진행 양희은, 김일중 프로듀서 안정민, 신유정  
 방송 MBC라디오 매일 아침 9:05~11:00 인터넷 주소 www.imbc.com

방송중 열린전화 02-368-1500 문의 02-789-3401 주소 (03925)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MBC 라디오 여성시대  
 편집·제작 하나로애드컴(02-3443-8005) 표지 작가 이경 월간지(비매품)

전국 주파수 안내(표준FM) ※ 전국 각 지역은 아래 주파수대에서 MBC 라디오 청취가 가능합니다.

서울 95.9	부산 95.9 / 106.5	대구 96.5	광주 93.9	대전 92.5 / 91.3	전주 101.7 / 94.3	창원 98.9
춘천 92.3 / 88.9	청주 107.1	제주 97.9(건설악) / 97.1(삼매봉)	울산 97.5	강릉 96.3	진주 91.1 / 93.5	목포 89.1
여수 100.3	안동 100.1	원주 102.5 / 92.7	충주 96.1	삼척 101.5 / 93.1	포항 100.7	울릉도 98.5

-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요 -

## 여성시대 특집 **‘사랑의 난방비’**

여성시대의 겨울은 춥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따뜻한 눈길과 손길을 뻗어주는 여성시대 가족들이 이 겨울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들이 모여 매년 겨울 여성시대에서는 ‘사랑의 난방비’가 18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함께 난방비가 필요한 시설과 개인에게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신청을 받아 502세대에 각 50만 원씩, 105개 시설에 각 150만 원씩, 모두 4억 17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작년 12월 ‘2023년 여성시대 사랑의 난방비’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전국의 여성시대 가족들에게 사랑의 난방비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보고하는 자리였습니다.

평소 사랑과 봉사의 삶을 살며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주시는 여성시대 당당이들을 스튜디오에 모시고 따뜻한 기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수 이한철 씨의 노래로 스튜디오는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2024년에도 꼭 이어질 사랑의 난방비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진 | 송인혁

## <여성시대 문자 모음>

[2176]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서는 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타 교실이 열립니다. 지난 1년간 '나이야 가라~' 외치면서 기타에 열정을 보여주신 회원분들께 격려와 칭찬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분이 더욱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8024] 전 제 건강을 위해서 이전 싫은 건 싫다고 이야기하려고요. 늘 오케이를 외쳤는데 섭섭한 건 섭섭하다, 기분 나쁜 건 기분 나쁘다고 이야기하고 눈치 안 볼래요. 적어도 속병에선 벗어나고 싶어요.

[3645님] 지는유~ 오래전부터 채널 용접 돼있시유~ 가끔 손님 태우고 차 타고 갈 때 그냥 95.9 여성시대 틀어유~ 그래도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 없시유~

[9023님] 5년 차 중고 당당입니다. 출근길마다 아빠가 차로 태워다 주시는데 아빠가 차 안에서 항상 여성시대를 들으셔서 저도 반강제적으로 아침마다 같이 듣고 있어요. 이제는 사연을 듣고 아빠와 그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빠와 사이가 더 돈독해진 것 같아요. 출근길에 소소한 행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9143님] 새로 오신 수영 선생님께서 여성시대를 어찌나 홍보하는지 처음엔 엠비시 관계자이신 줄 알았어요. 속는 셈 치고 한 번 들어봤는데 재밌긴 하네요.



[7035님] 저는 택배기사 2주 차 신입인데 선배 기사님들께서 여성시대 주파수 맞춰주시며 배달할 때 들으면 힘이 난다고 해서 소문 듣고 왔어요.





- 10 축의금 안 받기가 더 힘들어
- 12 만나고 싶다
- 14 배달 365일
- 17 길몽의 진정한 의미
- 19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자제분들
- 23 김루카 현혈기
- 26 밥술과의 대화
- 30 우여곡절 상견례
- 33 손뜨개 재능 나눔
- 35 무덤 속에서 나온 금반지
- 38 오랜만의 외식
- 41 부녀의 007작전
- 45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 48 쉼다섯 살도 가능한 이야기
- 52 철길 위 결혼반지
- 56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
- 60 퇴사를 고려 중인 직장인분께



일러스트 | 조신애

## Letter 01

# 축의금 안 받기가 더 힘들어

김정화 | 경북 안동시 와룡면

저는 최근에 아들을 결혼시켰습니다. 제 남편은 남들과 좀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반드시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결혼 얘기가 나오면 축의금 받지 않고 결혼시킬 거라고 장담했지요. 그러면 주위에서는 “그게 그렇게 쉬운 줄 아나? 그때 가 봐야 알지~” 등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들이 결혼하면서 진짜 축의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시골이라 동네에는 청첩장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결혼식도 경기도 부천에서 하고 어르신들이라 참석 못 하시는 게 뻔한데 부담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친척들이 축의금을 주셔도 실랑이를 벌이며 돌려보냈습니다.

가까운 친척들께는 모바일 청첩장을 보내며 전화도 드렸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지막에는 “축의금 안 받으니 그날 참석하셔서 맛있는 식사



하고 가세요. 얼굴이나 뵙지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친척들은 또다시 “무슨 소리냐~ 왜 안 받느냐~” 하셔서 아주 난감했습니다. 물론 모바일 청첩장에 계좌번호도 넣지 않았습니다. 아들한테는 예식비와 식사비가 모자라면 우리가 내주겠다고 했어요.

사실 대다수 사람은 우리의 진심을 차근차근 얘기하면 다 이해하고 자신들도 그러고 싶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도 우리 집은 다른 집 결혼식에 참석하고 축의금도 드릴 겁니다. 내가 안 받는 거지 다른 분들은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생각을 달리하고 다른 생각을 실천하는 것이 더 힘들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도 딸 결혼할 때도 축의금은 받지 않을 생각입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말하고 싶네요.

“우리 아들과 며느리! 너희들 그날 너무 예뻐고 멋있었다~.”

## Letter 02

## 만나고 싶다

최정남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만** 나고 싶다. 그 사람이 사무치도록 만나고 싶다.  
내가 노숙자 생활할 때 이야기다.

영등포역 무료 급식소에서 저녁밥을 얻어먹고 잠자리인 서울역까지 걸어가면서 한강대교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데 어둑어둑한 한강 다리가 유난히 음침해 보이면서 걸어서 건너기가 싫었다. 그렇지만 서울역에서 잠을 자려면 여기 한강 다리를 걸어 건너야 한다.

그때 허름한 화물 운반 오토바이 한 대가 신호대기를 위해 멈추면서 말을 걸어왔다.

“저~ 선생님, 이 다리를 건너려고 그러세요? 불편하겠지만 여기 타세요.”

갑작스러운 제의에 멍하니 그 사람을 쳐다만 보고 망설이고 있었다.

“신호 바뀌기 전에 어서 타세요.”

나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오토바이 짐칸에 올라탔다. 툭툭거리는 엔진 소리와 함께 매연 냄새가 코를 찌른다.

왜소한 체격의 40대로 보이는 이 사람도 어느 가난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툭툭거리는 오토바이를 몰고 있을 것이다. 그런 와중에서도 불쌍한 사람을 만났을 때 도와주려고 하는 고운 마음씨가 아름답다.

조금 전 영등포 무료 급식소에서 만났던 고운 마음씨의 아주머니 얼굴이 떠오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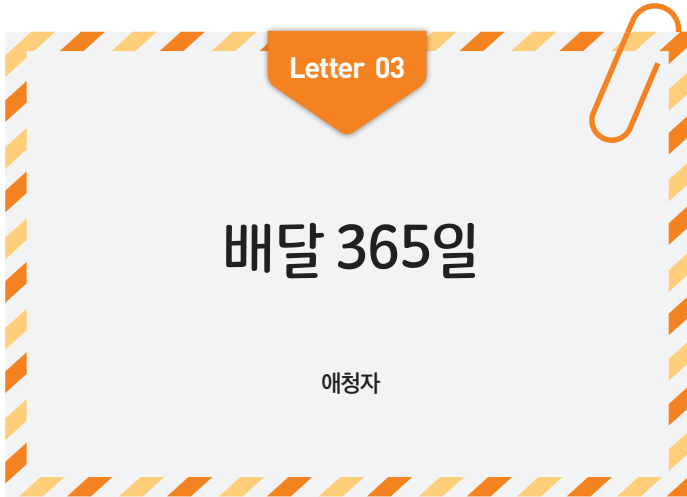
창피한 생각에 고개 푹 숙이고 식판을 받아 한쪽에 쭈그리고 앉아 아무렇게나 먹고 있는데 “아저씨, 식판을 반듯이 놓고 편안하게 앉아서 드세요” 자원봉사 아주머니가 다가와 식판을 바로 놓아주면서 하는 말이다.

그 아주머니는 고개 푹 숙이고 식판 받아 가는 내가 보기에 측은하게 보여 일부러 친절을 베풀어 준 것으로 보인다. 그 아주머니의 친절이 단순 일회성 친절이라기보다는 용기 내어 열심히 세상 살아가라는 격려의 말이었다고 본다.

나는 오토바이 기사님에게 고맙다는 등의 말도 하지 않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툭툭거리는 오토바이는 서울역에 도착해 있었다. 중간에 “내리겠다”는 나를 굳이 내려 주지 않고 서울역까지 태워다 준 그 고마운 사람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 외에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내가 안타까울 뿐이다.

그 후 나는 노숙자 생활을 면하고 가족을 다시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분을 만나고 싶다. 그때 한강 다리를 건너준 그분이 사무치도록 그립고 만나고 싶다.



**차** 가운 바람이 몰아치고 첫눈이 내리던 2022년 12월, 나는 이제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마음에 집 앞 2층에 있던 배달 회사를 찾아갔다.

‘기사 모집 - 나이·성별 상관없음’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만 보고 엉덩이를 뒤로 쭈뼛 채 “여기 사람 뽑나요? 나이가 많은데 괜찮나요?” 하고 물었다.

30대로 보이는 젊고 씩씩하게 생긴 지점장이라는 분의 “어서 들어오세요~ 괜찮아요~ 우리 그랜저 아저씨도 널 모래 환갑인데 월 300 넘게 가져가요”라는 말에 용기를 얻어 시작한 배달 사원.

오늘이 드디어 1년, 일한 지 365일이 되었다. 첫눈이 오고 쌀쌀한 바람이 꼭 작년 그때와 같아서 오후 휴식 시간에 잠시 지난 1년간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적어 보고자 한다.

배달을 시작하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사연도 하나하나 알게 되었다.

서울에서 커피숍 하다 안 돼서 빗 값으려고 하루 14시간씩 오토바이에 몸을 싣는다는 웅이, 다단계에 올인했다가 수많은 생각 끝에 마지막이라고 찾아왔다는 민이, 여성 부서관으로 12년 일하다 들어 왔다는 김 양, 집에서 놀다가 친구 따라왔다는 승일,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기러기 아빠로 지내다 우울증 극복하려고 찾아온 신 교수 사연까지.

눈빛이 살아 있고 의욕이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나도 용기를 가지게 되었다. 배달은 마지막 벼랑 끝 직업이 아닌가 생각한 적도 있지만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엔 대학 나오고 석사, 박사한 사람도 꽤 있다.

학벌도 명예도 다 거치고 새로운 도전을 위해 다시 일어서려고 꿈꾸는 이들이기에 고객들의 따스한 말 한마디가 배달 사원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된다.

배달도 전문직이다. 아무나 오토바이나 차를 타고 일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먼저 배달 지역의 지리를 구석구석 암기해야만 정해진 시간에 배달할 수 있다. 또 서비스직이기에 물건 하나를 옮길 때도 쓰러지지 않게 손상되지 않게 하려면 다양한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순간적인 판단력도 좋아야 한다. 바른 인사는 필수적이다. 그냥 배달만 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배달하는 물건도 음식부터 한약, 생필품 등 무척이나 다양하고 배달사원과 배달 주문자, 물건을 제공하는 가게까지 모두가 한 팀이다. 한 팀이 서로 조금만 도움 주면 소비자는 더 빠른 서비스를 더욱 좋게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배달 가게, 즉 식당이나 치킨집에서는 라벨을 붙여줄 때

빨간 펜으로 주소에 동그라미 하나만 그려줘도 배달사원은 실수가 적고 빠르게 배달할 수 있다.

물건을 받는 손님은 조금만 미리 준비해 주고 문을 빨리 열어주면 정말 감사하다. 한참 있다 나오면 엘리베이터는 한 번 더 내려가고 결제 시간도 오래 걸려서 적잖이 스트레스가 된다.

그리고 배달 사고도 종종 있는데 다른 아파트 동에 간다거나 음료수를 놓고 온다거나 대부분 신입사원 때 겪는 일이다. 혹시 그런 분이 오면 적응 중인가보다 생각하고 한 번만 참아 주시면 감사할 것이다.

일하면서 감사한 분들도 많이 만났다. 현관에 ‘마음껏 드세요’라는 편지와 함께 과자나 음료를 놓으신 분, 직접 들고 기다리는 분들도 있었다.

한 번은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서 음식을 들고 21층을 걸어서 올라가니 한여름이라 땀으로 범벅이 되었다. 그때 손님이 시원한 캔 커피 한 병을 주는데 참으로 고마웠다.

그리고 또 배달 라벨에 ‘천천히 오세요, 고맙습니다’ 등의 다양한 인사말을 적어주는 얼굴 모르는 손님들 덕분에 힘을 냈다.

이 추위에 가정에서 편안히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배달 사원도 우리가 감사해야 할 직업 중 하나가 아닐까.

365일 달리면서 지켜본 배달 가방 안에는 인생이 있고 사랑이 있고 눈물이 있었다. 각자 사연을 품고 열심히 살아가는 이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주고받을 수 있다면 세상이 더욱 아름다워질 거라 믿는다.



## Letter 04

# 길몽의 진정한 의미

백상현 | 대구광역시 서구 국제보상로

아침에 눈을 뜬 채로 멍하니 지난밤 꿈을 생각했다. 꿈을 잘 안 꾸는 편인데 아니 잘 기억하지 못하는 편인데 어젯밤에는 너무나도 생생하게 집에 불이 붙어 활활 타는 꿈을 꿴다. 얼핏 불 꿈은 길몽 중의 길몽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휴대폰으로 검색해 보았다. 예상대로 엄청나게 좋은 꿈이라는 글을 읽고서는 기분 좋게 침대에서 일어나 '오늘은 복권을 사야겠다'고 생각했다. 평소에는 돈 아깝다는 생각에 복권을 잘 사지 않는데 그날은 아내한테도 비밀로 하고 예사롭지 않은 꿈을 떠올리며 거금 1만 원어치를 구매했다.

그런데 희한하게 복권을 산 그날 밤에는 피 꿈을 꾸고 그다음 날에는 돼지꿈을 꾸었다. 피 꿈 또한 좋은 꿈이라고 하기에 정말 심상치 않다는 예감이 들어 길몽이 3일 연속이니 3에 맞춰 복권도 2만 원어치 더 구매해서 숫자 3에 맞췄다.

그날부터 마치 복권 1등에 당첨된 것 같은 기분으로 1등에 당첨되었을 때의 요령과 1등 당첨금을 수령하는 방법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매일 매일 상상의 나라를 마구마구 펼쳤다.

드디어 토요일 저녁 1등 아니면 2등이라도 분명 된다는 확신 아닌 확신을 가지고 번호를 확인했다. 결과는 3만 원어치나 산 복권 중에 5등이 하나, 5천 원에 당첨된 게 다였다. ‘이게 뭐지? 대체 그 꿈들은 왜 끈 거야?’하고 꾸념하며 실망감으로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리고 나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수화기 너머로 “나야~ 잘 지냈어?”라는 말이 들렸다. 누구 목소리더라 생각하다가 머릿속 백열등이 번쩍였다. 25년 지기 친구, 동수였다. 사업을 하는 이 친구가 너무 힘들어해서 5년 전에 3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말없이 잠수를 타고 연락이 되지 않던 바로 그 친구였다.

동수가 말했다.

“오늘 저녁에 시간 어때? 소주나 한잔할까?”

나는 그러자고 했다. 그날 저녁에 만났는데 친구는 그간 힘들었던 상황을 들려주며 사업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며 제일 먼저 나에게 돈을 갚고 사죄하고 싶다고 연거푸 미안하다고 했다. 당시 나도 상황이 좋지 않은 터라 은행 대출까지 받아 빌려줬고 그 돈은 얼마 전에야 겨우 갚았다. 친구가 건네는 3천만 원보다 잃었던 친구를 다시 찾은 마음에 그 친구 손을 잡고 “고생했다. 다시 연락해 줘서 고맙다”고 했다. 우리 둘은 손을 잡고 뜨거운 눈물을 한바탕 쏟아냈다.

소중한 친구를 되찾았다는 행복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는데 얼마 전에 끈 3번의 길몽이 불쑥 떠올랐다. 그렇구나. 불 꿈, 피 꿈, 돼지꿈은 바로 이 친구를 다시 만날 길몽이었나 보다.

## Letter 05

#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자제분들

정수성 | 대구광역시 북구 동북로

**3년** 전 혼자 계신 어머니의 말씀이나 행동이 평소와 너무 다르고 이상해 처음엔 연세가 드셔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도저히 평소 행동은 아니다 싶어 정신과 진료를 보러 갔습니다. 초기 치매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어머니를 돌보다 보니 어머니와 비슷한 증상의 동네 어르신들 모습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제가 자그마하게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한 자리에서 14년 넘게 하다 보니 중·고등학생이던 손님들이 이젠 시집장가는 모습도 보고 특히 제가 있는 지역은 노령 인구가 많아서 젊은 층보다는 연세가 좀 있는 손님들이 많습니다.

지나가다 휴대폰이 안 켜진다 이거 어떻게 켜냐, 문자 보내는 방법 좀 알려 달라, 사진 찍어서 보내야 되는 데 잘 안된다는 등 젊은 사람들이 보기엔 별일 아닌 아주 간단한 것들을 못 해서 도와 달라고 들

르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런데 반복적으로 자주 오시는 어른 중에 어느 순간부터 눈동자에 초점이 없이 평소 이런 거까지 물어보던 분은 아닌데 설명해 드려도 이해를 전혀 못 하시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했던 말 계속 반복하고, 바로 좀 전에 알려드린 걸 30초도 기억 못하시고 제 경험상 이걸 초기 치매로 가는 길 같다 싶었지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대부분 집에 자녀분이나 가족 없이 혼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례로 하루에도 몇 번씩 가게 앞을 지나다니면서 문자가 너무 많이 온다, 필요 없는 문자 좀 지워줘라, 벨 소리가 너무 작다 크다 조절해 주라고 하시던 어르신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가게에 오셔서 자기 동생이 집을 나갔는데 어디 있는지 찾아 달라, 아들이 회사 사장한테 살해당했는데 경찰이 조사를 안 해준다, 휴대폰 번호 알려줄 테니깐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조회 좀 해달라, 한 번 오시면 1시간 이상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하시더라고요. 아, 뭔가 마음의 병이 오셨구나 싶었습니다.

어느 날 매장 앞으로 따님이랑 지나가시길래 조심스레 달려 나가 제 상황을 말씀드리고 어머니 상태를 알렸더니 따님도 뭔가 좀 다르다고 느꼈지만 집에서만 한 번씩 그러시는 줄 알았다고 하더군요. 아니면 다행이지만 그래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한번 알아봐라 말씀드렸습니다. 다행히 다음 주에 자녀분들 다 모여서 회의하고 병원에 다녀오셨다고, 지나가는 길에 고마웠다고 인사를 하시더군요.

또 다른 어르신 한 분은 해만 지면 나와 막걸리 한 병을 들고 가게 뒤편 어두운 골목에서 마시는 분이 계시는데 언제부턴가 퇴근길에 보면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동네에서는 이상한

할머니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아들이 한 명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방문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 매장에 오셔서 휴대폰 전원이 꺼져 있으면 켜는 법도 모른다고 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만 하시더군요.

아드님이 오셨기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외아들이기에 어머니가 아프시면 제일 고생하는 사람은 아드님일 거다, 힘들고 바쁘겠지만 조치는 좀 해드려야 할 거라고요.

그 아드님 역시 어머니가 좀 이상하시다는 걸 알았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잠깐 뵙다 보니까 그 정도일 줄은 몰랐다 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병원 검사 다 받고 복지관 열심히 매일매일 잘 다니고 계세요.

그리고 일 년에 6개월씩 미국 가서 살다 오는 할머니도 계십니다. 자식들이 다 미국에 있어서 애들도 봐줄 겸 다녀오곤 하셨는데 이제 나이도 들고 힘들어서 비행기도 못 타겠다고 미국 안 가신 지 2년 넘게 영상 통화만 하셔서 SNS도 아주 잘 다루시는 어르신이었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미국에서 오는 전화를 못 받았다고 잠옷을 입고 달려오기도 하고 평소 잘하던 것도 어려워하면서 눈동자에 힘이 없어 보이셨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어머니도 이제 어린이로 돌아가시는 갑다’ 덜컥 겁이 나더군요. 자제분이 한국에 나오셨을 때 “평소 어머니를 잘 돌봐주셔서 고맙다” 매장에 인사를 오셨길래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제가 볼 때는 이리이러하다고요.

그 따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군요. 자기도 엄마랑 통화해보면 하신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미국에서 나왔다고요. 미국에서만 오래 살아서 어디서 뭘 어떻게 검사해야 하냐고 물기에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이렇게 진행했다 말씀

드렸더니 그분도 이곳저곳 병원 다니면서 검사하다가 그 과정에서 위암까지 발견해서 다행히 초기라 간단히 수술받고 자식들이 미국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6개월 뒤에 보자고 가시기 전날 손 흔들어 주고 가셨지요.

갈수록 1인 가구는 늘고 있고 다들 직장 문제로 먹고사는 문제로 시간이 부족해서 따로 사는 부모님을 자주 못 뵙는 경우가 많더군요. 그런데요 부모님이 뭔가 좀 이상한데 싶으면 늦을 수도 있더라고요. 같이 밥 먹고 매일 대화하고 살면 금방 알아챌 것도 떨어져 가끔 만나고 가끔 뵈면 잘 모를 수밖에요.

저도 저희 어머니가 이런 일을 겪으시기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옆에서도 잘 못 봤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초기 치매 진단을 받던 그때 그 충격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고 옆에서 돌보면서 공부하는 과정도 쉽지만은 않았고 무엇보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러니 부모님과 떨어져 사시는 자녀분들은 특히 혼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자주 찾아뵙고 혹 그럴 수 없는 상황이면 근처에 있는 이웃들에게 부모님 건강에 이상 징후가 보이면 언제든 이야기해달라 부탁이라도 해 놓길 정말 고민 끝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가볍게 넘기지 말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챙기시길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치매 어르신을 모시고 계신 가족 분들 모두들 힘내시고 빨리 과학 기술이 더 발달해서 치매도 치료가 되는 세상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 Letter 06

## 김루카 헌혈기

김현경 |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저는 예전부터 시골에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43살의 젊은 나이에 비혼의 몸으로 그것도 여자 혼자 겁도 없이 아무 연고도 없는 강화 시골 마을로 귀촌했습니다.

귀촌과 동시에 동물을 좋아했던 저는 오랜 로망이었던 한 살 된 골든 리트리버 ‘루카’를 입양했고 루카와 강화도 시골살이를 시작한 지 올해로 벌써 4년 차에 접어들었어요.

도시에서의 모든 커리어를 포기하고 여기서는 최저시급을 받으며 일하고 있지만 조금의 후회도 없이 저와 루카는 하루하루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루카가 대형견이다 보니 관련된 카페 활동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공혈견’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루카는 일 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헌혈을 하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아프거나 수술할 때 급히 수혈을 받듯 반려견 역시 노환이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급히 수혈이 필요할 때 혈액을 제공해주는 개들이 바로 공혈견입니다. 다만 사람과 다른 게 이 공혈견들은 본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평생을 철창에 갇혀 혈액만 공급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한국헌혈견협회에서는 이런 공혈견들을 대신해 자발적인 헌혈견들을 모집하고 있어요. 우리 루카도 그 협회에 등록했고 좋은 일을 하자는 취지에서 일 년에 한 번씩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헌혈견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은 평생희원 가입을 해야 하는데 아주 적은 금액의 회비가 있어요. 제가 가입할 당시엔 6만 원 정도 납부했고 지금도 비슷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회비를 납부하고 두 살부터 여덟 살까지 성견 기준으로 몸무게 25kg 이상, 과거 심장사상충이나 바베시아, 혈액 관련 질병이나 바이러스 관련 질병에 걸린 적이 없어야 하고 매월 심장사상충 약, 내외부 구충 예방약 등을 꾸준히 복용해야 해요.

헌혈견으로 선정이 되면 아픈 강아지들에게 건강한 혈액을 공급해야 하니 헌혈 전 무료 건강검진은 기본이고 백혈구 수치나 헤모글로빈 수치 등 저도 모르는 여러 가지 각종 검사를 받을 수 있고 헌혈 후에는 협회 후원사에서 사료나 영양제 등 각종 반려견 용품을 선물로 보내줍니다. 좋은 일도 하고 무료로 건강검진과 좋은 선물도 받으니까 공혈견들이나 헌혈견들 모두에게 좋은 일이 아닐까 생각해요.

우리 루카는 매년 루카 생일인 6월에 정기적으로 헌혈하고 있어요. 루카는 강화도에서 가까운 동물의료원을 이용하는데 의사 선생님들이나 간호사님들이 정말 동물을 좋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못 하시



졌구나 싶을 정도로 진심이 느껴져요.

헌혈 전 필수인 혈액 검사랑 건강검진을 위한 채혈을 할 때도 “루카야~ 루카는 여름휴가를 바닷가로 다녀왔네~” “우리 루카 이번에도 잘할 수 있지요~ 이거 끝나고 맛있는 거 줄게~” “아이고 잘하네~ 우리 루카 예쁘다~” 하면서 루카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 줍니다. 본격적인 헌혈을 할 때도 루카를 절대 강압적으로 대하거나 서두르지 않고 루카 눈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어르고 달래면서 헌혈을 합니다. 아무리 건강한 반려견이라 해도 400ml만 헌혈하는데 이 정도 양이면 작은 소형견 세 마리 정도는 살릴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추후 루카의 혈액이 어느 강아지에게 수혈되었고 그 강아지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해서 퇴원했다는 소식도 사진과 함께 전해주세요. 수혈받은 강아지 보호자들도 감사의 인사를 전해 오시는데 그럴 때마다 정말 뿌듯한 마음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헌혈하다 보니 루카를 더 건강하게 키워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저 역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자는 다짐도 하게 돼요.

세상 모든 공혈견을 위해 부족한 글솜씨로 사연을 보냅니다. 제 글이 방송된다면 공혈견과 헌혈견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을 두고 만약 동물병원에서 ‘한국헌혈견협회’라고 인쇄되어 있는 노란색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있는 대형견들을 보신다면 ‘좋은 일 한다, 착한 일 한다’ 하면서 한 번씩 쓰담쓰담 해주세요.

- 추운 날씨에 모두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며 강화도에서 김루카와 김현경 드림

Letter 07

## 밥솥과의 대화

임은지 | 경남 양산시 물금읍

**집**에 전화를 걸어 부모님의 안부를 묻는다. 전화 속 엄마가 며칠 전부터 밥솥이 좀 이상하다고 했다. 서울에 사는 막냇동생이 사준 밥솥이 아프단다. 말하는 인공지능 밥솥인데 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렇게 싹싹하고 말 잘하던 밥솥이 도통 말하지 않으니 갑갑해서 못 살겠다 하신다. 무엇 때문에 빠졌는지 아무리 물어도 입도 뻥긋하지 않는단다. 늙은이라고 너도 우리를 무시하는 거냐며 호통을 쳤단다. 꿈쩍하지 않는 걸 보니 매우 아픈 것 같다며 걱정하신다. 말하는 밥솥이 말하지 않아 속상하다는 엄마.

“집에 가면 밥솥부터 쳐다볼게요” 하고 전화를 끊었다.

우리가 부모님 뵈러 갈 때 찜이나 생선회, 밀반찬을 사서 가니까 “밥만 맛있게 한 솥 얹혀 주세요” 부탁드리면 흔쾌히 그렇게 할 테니까 천천히 조심해서 오라 하신다. 부모님과 마주 보며 같이 먹는 밥맛

은 꿀맛이다.

하루는 아버지가 밥을 지으려고 쌀을 솥에 그냥 부었다. 내솥에 부어야 하는데 그냥 부은 것이다. 깜짝 놀란 아버지는 솥을 거꾸로 들고 쌀을 털어냈다고 하신다. 예전에 할머니가 솥에 물을 붓고 쌀을 씻었는데 나중에 보니 내솥이 없어 솥을 거꾸로 엮어놓고 종일 말린 적이 있다 하며 나이가 드니 이해가 된다고 하신다. 저도 요즘 종종 그런다고 하니, 같이 늙어간다고 웃으신다. 아버지의 미소는 언제 봐도 백만 불짜리다. 귀엽고 곱게 익어 가시는 아버지 모습이 참 좋다.

친구들은 양가 부모님 모두 세상을 떠나시고 자신을 세상에 둘도 없는 고아라며 부모님을 그리워한다. 부모님이 살아 계신 나를 부러워하며 복받았다고 한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사는 날까지 부모님이 퍼주는 따뜻한 밥 한 공기에 힘을 내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가고 싶다.

“맛있는 밥을 시작합니다” 밥솥이 말하니 “그래, 오늘도 밥 맛있게 지어서 참말로 고맙다. 네가 효자다” 그러시며 아버지는 밥솥을 자식처럼 쓰다듬으신다. “맛있는 밥이 완성되었으니 골고루 잘 저어 달라”는 멘트까지 하고 “보온을 시작합니다” 친절하게 알려주는 밥솥.

매 끼니때 식사 준비하는 아버지는 동생이 사준 밥솥이 맘에 쏙 든단다. 밥을 지으면 밥맛이 일품이라며 이 밥솥만 사용하는데 갑자기 말문을 닫은 밥솥을 안고 “어디 아프냐? 내가 너한테 실수한 거라도 있냐? 화가 났으면 어서 맘 풀고 예전처럼 상냥하게 말 좀 해봐라. 네가 말을 안 하니 적막강산이 따로 없다” 하며 밥솥을 데리고 가서 고쳐오라고 하셨다.

끼니때마다 부모님의 말벗이 되어주는 밥솥이 가끔 전화해서 안부 묻는 자식보다 나은 것 같다. 나는 부모님께 저 밥솥만도 못한 딸은 아닌지 반성해 본다.



아궁이에 솔가지 밀어 넣고 밥 짓던 때도 있었다. 매운 연기에 눈물 흘리며 김이 오르면 뜸을 들었다. 남은 잔불에 석쇠를 놓고 그 위에서 김을 구웠다. 참기름과 소금을 솔솔 뿌리고 갓 지은 쌀밥에 김을 얹어 한입 베어 물면 바사삭 소리도 경쾌하다. 귀한 손님이 오시는 날은 달걀에 구멍을 낸다. 불린 쌀을 넣고 약한 불로 구워주시던 엄마. 그때가 엇그제 같은데 전기코드만 꽂으면 몇 분 뒤 밥이 지어진다. 입맛 대로 골라 맛있게 지어먹을 수 있는 편한 세상이다.

엄마는 고장 난 밥솥 안부가 궁금해서 전화하셨다. 이번 주 고쳐서 들고 내려간다니 기뻐하신다. 내가 두 분에게 10인용 밥솥은 너무 큰 것 같다고 하자, 괜찮단다. 밥맛이 하도 좋아 그 솥만 사용한다고 하셨다. 6인용 밥솥이 생겨 가져다드린다 해도 사양하시며 정든 그 밥솥이 좋단다. 그렇다. 맛있는 밥 지어서 드시고 두 분 오래오래 건강하시기만 하면 된다.

저녁밥이 다 되었는데 밥솥이 또 말한다.

“우리 형제 대신 네가 부모님의 말벗이 되어주니 참으로 고맙구나. 부모님 잘 부탁한다.”

엄마가 언젠가 주방에서 혼잣말하고 계시다가 별거 아니라고 할 때가 있었다. 독백이 아니고 밥솥이랑 대화하고 계신 거였다. 자녀들 키워 다 떠나보내고 두 분이 의지하며 적적함을 밥솥과 대화하며 지내고 계셨다. 한편으론 가슴이 아프고 자꾸 보니 익숙해져 이제는 나도 따라 한다. 웃음이 나온다. 엄마의 절친은 밥솥이 아닐까 싶다.

무릎이 아픈 엄마를 위해 다용도실에 낮은 가스레인을 설치했다. 그 옆에 엄마 친구 말하는 압력밥솥이 있다. 가스레인에 냄비를 두고 국이 끓으면 갖 지은 밥 한 공기를 퍼서 상에 올려주는 아버지. 두 분이 다정하게 대화하는데 밥솥이 끼어든다. 엄마 아버지는 “그래~ 그래~” 하며 자식처럼 밥솥의 말을 받아준다.

밥솥은 친절한 아가씨 같다. 우리 부모님께 딸이 하나 더 생긴 셈이다. 남 험담을 해도 어디 옮기지도 않는 믿음만한 친구. 부모님의 속상함을 묵묵히 다 들어준다. 자식들처럼 잔소리도 하지 않는다. 인공지능 밥솥이 있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우리 부모님께 딸 같은 밥솥을 만들어주신 밥솥 회사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

## Letter 08

## 우여곡절 상견례

권현옥 | 경북 영주시 봉현면

**올** 해 서른다섯 살 먹은 둘째 아들이 같은 직장 한 해 후배를 동  
기에게서 소개받았습니다. 그 애는 참으로 착했고 예뻐습니  
다. 서울 태생 아가씨치고는 너무 순진해서 '서울깍쟁이'라는 옛말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렇게 순진한 아가씨였습니다.

둘이 사귄 지 일 년쯤 지난 후에 아들 녀석이 그러더군요.

“엄마, 나 그 친구랑 결혼하기로 약속했는데 엄마 아빠들도 서로 인  
사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도 그 친구가 너무 맘에 들었기 때문에 흔쾌히 그러자 했습니  
다. 그런데 상견례 이틀 전에 억수같이 내리던 장맛비가 급기야는 산  
사태를 일으켜서 우리 집이 쓸려 내려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리 집  
이 과수원을 하느라 산밑에 외딴곳에 있었거든요. 다행히 산사태가  
집을 덮치지는 않았고 담 옆에 쌓아놓은 장작이 큰 역할을 해준 덕에

물길에 집 옆으로 돌아 마당과 잔디밭을 모두 덮어버렸습니다.

복구 지원은 도청 직원, 마을 어른들, 이장님 그렇게 30여 명이 힘을 보태 주셔서 다행히 너무 어렵지 않게 했습니다만 상견례는 어쩔 수 없이 다음으로 미뤄지게 됐지요.

그러다가 10월 들어서 애들이 “엄마, 우리는 5일에 시간이 나는데 엄마 아빠는 어때요?” 하면서 양가 집안의 만남을 다시 잡았습니다. 우리는 시골 살면서 농사짓느라 햇볕에 얼굴이 까맣게 그을렸고 입과 갈 옷도 신경 쓰였습니다.

“우리가 시골 사는데 저쪽 집에서도 이해하시겠지. 그냥 깨끗하게 입고 나가면 되지. 뭘 그리 신경 쓰나?”

남편은 무심하게 말했지만 그게 여자랑 남자랑 차이인 거 같습니다. 저는 미장원에 가서 머리도 조금 손질하고 싶고 코로나19로 외출할 일이 없어 몇 년 동안 사지 않아 옷도 마땅한 게 없었기에 새로 사 입고 싶었는데 시간이 빠듯해서 그런 걸 하나도 못한 채 약속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씻고 드라이하고 화장 대충 하고 옷을 차려입는데 갑자기 핑 돌면서 평소 지병인 어지럼증이 도졌습니다. 식은땀이 흐르고 속이 메스껍고 멀미 나듯이 머리가 빙빙 돌고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죠. 옷을 입고 구두를 신던 남편이 그런 저를 보더니 그래서 어떻게 가겠냐며 웅하니 작업복으로 갈아입더니 들로 나가버리더군요. 저는 아들에게 전화해서 엄마가 지금 이래서 못 가게 생겼는데 어떡하느냐 했더니 “아프신데 당연히 쉬셔야죠. 여기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몸조리만 잘하세요” 하면서 저를 걱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상견례도 또 미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에 애들이 하루 휴가를 내어줬으니 그날로 날을 잡겠다 해

서 알았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사돈댁에서 그날 중요한 손님이란 큰 공사 건으로 계약하게 됐다며 한 이틀만 늦추자고 하더군요. 우리는 상관없으니 그러자 했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 만남도 미뤄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드디어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잡은 날이 된 겁니다. 그날도 아침부터 남편이 닦아놓은 구두를 다시 한번 닦으면서 드디어 만나는구나, 예쁜 딸을 잘 기르신 부모님은 어떤 분들일까 궁금해하며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역 대합실에 들어서는 남편 신발 뒷굽이 다 삭아서 깨끗한 역 바닥을 시커멓게 어질러 버린 겁니다. 이렇게 황당한 일이! 시골에서는 누구 결혼식이나 장례식 말고는 구두 신을 일이 별로 없는데 그마저도 코로나로 몇 년간 정말 신을 일이 없어서 신발장 안에만 있던 남편 구두가 삭아서 겨우 모양만 유지하고 있다가 사람이 신고 걸으니 그 무게에 바스락바스락 뒷굽이 다 부서져 버린 겁니다.

기차 타기 20분 전 차를 돌려서 신발을 갈아 신고 오겠다고 떠난 남편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이번에도 기차를 놓치고 또 약속을 못 지키면 어찌나 싫어서 그런 낭패가 또 생기면 안 되는데 안절부절못하며 대합실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기차 출발 3분 전 멀리서 달려오는 남편이 보이더군요. 휴 겨우 한숨을 돌리고 차에 탔습니다.

그렇게 사돈 될 분들을 만나고 인사하고 내려오는 길에 남편과 저는 참으로 우여곡절도 많았다며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 아 이들이 내려오면 마지막 상견례 에피소드를 들려주면서 우리 또 웃을 겁니다.

여성시대 당당이 여러분~ 올봄에 결혼 날 잡아 놓은 우리 두 애들, 축복 많이 해주세요.



## Letter 09

## 손뜨개 재능 나눔

유양숙 | 서울 성북구 아리랑로

**오** 늘도 나는 비탈길을 오른다. 홀로서기를 꿈꾸는 여성 노숙인들이 숙식을 하며 자활을 하고 있는 화엄동산을 향해서 한참을 걸어 올라가다 보면 파란 대문이 보인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여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빨라진다.

그곳에서 나는 일주일에 한 번 팀블러 커버, 액세서리, 키링 등 비교적 간단하고 다양한 손뜨개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이분들과의 첫 만남은 그동안 내가 뉴스에서 봐오고 상상하던 것과는 많이 달랐다. 환경은 열악했지만 나름대로 정돈되고 화목한 분위기도 좋았다.

일단 조심스럽게 눈인사를 하고 처음으로 손뜨개에 도전한다는 분들과 수업을 했는데 다들 너무 어려워했다.

아, 이게 아닌데 설명이 부족한가? 어떡하지? 어쩌면 좋지? 그러다

곧 나는 깨달았다. 나를 내려놓고 모든 걸 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자. 이분들이 스트레스받으면 안 되지. 예쁘지 않으면 어때.

동생한테 손뜨개 책과 코바늘을 선물 받았다고 기뻐하는 모습이 사랑스럽고 수업 내용을 잊지 않으려고 꼼꼼히 메모하고 그러가면서 열심히 배우려는 열정도 사랑스럽다.

손가락이 아파도, 팔이 아파도, 허리가 아픈 것도 잘 참고 집중하면서 떴다 풀렀다를 반복하다가 드디어 완성!

환하게 좋아하는 웃음 속에 보이는 그들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다. 꼬불꼬불해도 삐뚤삐뚤해도 울퉁불퉁해도 크기가 달라도 모두 예쁘다.

처음엔 반듯하게 떠야 한다고 강요 아닌 강요를 했던 게 부끄럽기 짝이 없다.

완성한 것들은 소중하게 모아 포장도 예쁘게 하여 연말엔 어려운 어르신들께 선물하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며칠 전엔 그동안 모아온 5백여 장의 수세미를 불우이웃을 위해 기부했다고 한다. 나눔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진다.

힘든 날들 속에서도 자립의 꿈을 놓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화엄동산의 식구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고 이분들의 꿈과 마음이 하루빨리 건강해지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끝나고 헤어질 때마다 “다음에도 꼭 오세요” 하는 인사가 나의 마음을 찡하게 한다.

## Letter 10

# 무덤 속에서 나온 금반지

조숙자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

**몇** 년 전 추석을 며칠 앞둔 9월의 따스한 날 친정엄마는 우리 5남매를 두고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 곁으로 가셨습니다.

우리 엄마는 말을 전혀 알아 듣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엄마의 어깨나 팔 허리 등 몸 일부를 두드려서 엄마와 얼굴을 마주 봤습니다. 손으로 입으로 수화 아닌 수화로 온갖 할 수 있는 건 다 하면서 대화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서로 마주 보는 얼굴 표현에서 충분히 믿음의 눈길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 5남매는 엄마의 힘겨운 사랑 속에서 모두 결혼해 잘 살고 있습니다.

‘법 없이도 산다’는 말이 있죠. 딱 우리 엄마를 두고 한 말 같습니다. 엄마는 매번 목욕탕에 가실 때마다 동네 어르신들을 씻겨드렸다고 합니다. 엄마도 허리 어깨 무릎 등이 편찮으셔서 당신 몸 씻기도 힘드셨을 텐데 수십 년을 그렇게 하셨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평소에 저희에게도 말은 하는 사람보다도 듣는 사람이 잘 들어야 한다, 길을 가다 누군가 담배 한 개비를 달라고 하면 얼른 가서 한 갑 사드리고 동네 어르신들을 뵈면 요구르트 한 병이라도 드리라고 항상 당부하셨습니다.

그렇게 몸소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며 사셨던 올 엄마가 지난해 여름 아흔 생신에 너무 좋은 곳에서 우리 가족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남겨 주시고는 며칠 후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사람은 돌아가실 때 복이 있어야 한다'던데 그게 우리 엄마시더군요. 엄마는 한 달간 힘든 숨소리 한 번 내지 않고 같이 지내는 동안 우리 5남매에게 너무나도 귀한 시간을 내어주시고 조용히 잠결에 하늘의 별이 되셨습니다.

엄마를 아버지와 합장해 모시기로 했습니다. 장지에 도착해 준비하는데 아버지 묘에서 반지가 나오더군요. 그 반지는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그러니까 수십 년 전 언니가 평소 끼고 있던 반지를 아버지께 드렸던 건데 그게 글썄 30년 만에 햇빛을 본 겁니다.

가난한 집안의 가장이셨던 아버지는 줄줄이 달린 자식들과 아버지 형제들, 조부모님까지 우리 식솔들 9명을 땅땀기 하나 없는 집안에서 먹여 살리려고 무던히도 애쓰셨습니다.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죽을힘을 다해 그리 사셨다는 걸 어렸던 저도 어렵פות이 기억합니다.

그런 아버지의 무덤 속 깊은 잠에서 깨어난 누런 금반지를 보는 순간 “아~” 하는 언니의 짧은 탄성이 어깨너머로 들리더군요. 우리 가족에게 베풀어주신 아버지의 큰사랑, 아버지와의 짧은 추억을 잊지 않으려는 딸의 애뜻한 마음을 아버지는 알고 계셨을까요. 둔탁하고 울드한 아버지의 반지는 이제 다시금 제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무덤 속에서 30년간 지켜온 아버지 반지가 어떤 특별한 순간에도 언니에게 위안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 역시 아버지의 두툼한 금반지를 보는 순간 마음이 저릿해지면서 엄마가 주고 가신 제 손에 남아 있는 반지를 더듬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는 이제 평소에도 좋은 일이 생기거나 슬픈 일이 생겼을 때 엄마가 생각나거나 보고파지면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엄마가 해주신 반지를 만지고 있습니다.

엄마, 영원한 내 편. 이제 온전한 내 편이 곁에 안 계시지만 나는 엄마가 우리 엄마라서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엄마 가실 때 물 좋고 공기 좋은 먼먼 산골짜기에 엄마의 못 들던 귀는 버리고 가시라고 우리 5남매가 소리쳤잖아요. 엄마, 이제 거기서는 아버지 만나서 서로 몸을 두드리지 않고도 눈 맞추고 우리와 행복했던 순간들 즐겁게 말씀 나누실 거라 믿을게요.

우리 5남매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만날 때까지 잘 살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참으로 맑고 곱네요.

- 엄마를 사랑하는 독수리 5남매 중 넷째 딸 올림

## Letter 11

## 오랜만의 외식

애청자

저는 어릴 때 지금의 광진구 자양동 한강공원 근처에 살았습니다. 당시에 동네에 돼지갈빗집이 있었는데 화려한 네온사인으로 가게 상호가 반짝이고 숯불 냄새가 정말 좋은 곳이었습니다.

제 기억에 첫 외식이 '숯불돼지갈비'였습니다. 빨갭게 달아오른 숯불이 들어오고 유니폼을 멋지게 입은 누나가 서빙을 했어요. 우리 네 식구는 익어가는 돼지갈비를 보면서 맛있는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숯불돼지갈빗집이라 주말 저녁이면 사람들로 가득 찼고 동네 친구, 옆집 아저씨 등도 그 식당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숯불 연기와 냄새가 가게 안을 꽉 채워도 그저 맛있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맞은편에 새로운 숯불갈빗집이 생겼는데 형의 같은 반 친구 부모님이 하시는 가게였습니다. 그 가게에도 가보았지요. 메뉴에 '갈매기살'이라는 게 보여서 호기심에 아버지가 드시는 것을 맛봤는

데 초등학교생인 제 입맛에는 역시 돼지갈비가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직장생활을 하다 말고 하다 말고 해서 가정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건강관리를 하지 않던 아버지는 결국 병을 얻었고 신부전증으로 투석을 해야 했습니다.

어려운 살림에 수술비와 투석비까지 감당하느라 우리 가족에게 외식이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아르바이트하면서 외식하는 남의 가족 모습을 넋 놓고 바라보곤 했습니다.

군대 갔다 오고 열심히 돈 벌어 아버지 병원비를 갚아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 결혼했는데 제가 어려운 형편이라는 것을 알고도 이해해 주어 고맙습니다.

제가 하나 다짐하고 산 것은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고 열심히 건강관리 하면서 경제활동도 꾸준히 하리라는 다짐이었습니다.

우연히도 부모님과 아내 생일이 3일 연속으로 붙어 있어서 아버지 생신 때 몰아서 한 번에 합니다. 속상할 수도 있을 텐데 아내는 한 번에 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해주어 고맙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 생신 때 휠체어에 아버지를 태우고 근처 식당으로 가서 외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식당 입장부터가 난관이었습니다. 휠체어에 탔던 아버지를 안고 식당에 들어가니 ‘어서 오세요~’가 아닌 ‘어찌지...’ 하는 종업원 눈빛이 보였습니다. 일부러 큰 소리로 “어디 앉으면 돼요?” 묻고는 자격지심에 제일 비싼 메뉴를 시켰습니다. 음식이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먹었습니다. 저녁 시간이라 다른 사람들 시선도 불편했습니다.

오랜 병환으로 아버지는 지난해 4월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슬퍼할 시간도 없이 다시 열심히 일하며 살았습니다.

11월에 부모님 생신과 아내 생일이 있는데 이번에는 아버지가 안 계

서서 정말 오랜만에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회를 먹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생신이 어머니 칠순이기도 해서 가끔 저희 부부가 가는 횃집에 가서 제일 비싼 메뉴를 시키고 다양한 회와 곁들여 나온 해산물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식당에서 파는 소주는 비싸다고 시키지 말자는 어머니께 “괜찮아~ 엄마 생일이잖아~” 하며 소주도 곁들였습니다.

어머니는 바닷가에서 태어나 회를 좋아하시는데 평소에는 횃집에 갈 엄두를 못 내고 동네 마트에서 소비기한이 다 되어가는 싼 회를 사다가 드시곤 했대요.

식사 마치고 계산할 무렵 어머니가 금액을 보고 깜짝 놀라시며 “아들! 많이 나왔는데 괜찮니?” 하며 걱정하셨습니다. “엄마~ 아들 돈 많아서 괜찮아. 정말 괜찮아~” 말하며 ‘왜 진작 모시고 오지 못했나...’라는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꾸준한 직장생활로 이제는 아버지 병원비도 갚고 작은 집도 마련해서 사는데도 저를 걱정하시는 어머니.

어머니 칠순에 화려하진 못해도 이렇게 대접해 드리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30년 동안 아버지 병간호에 힘들었던 어머니. 이제는 자주 모시고 외식도 해야겠습니다.



## Letter 12

## 부녀의 007작전

애청자

지 난해 초에 남편과 딸이 같이 출근하던 날, 딸은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아빠! 우리 서로 모르는 사이인 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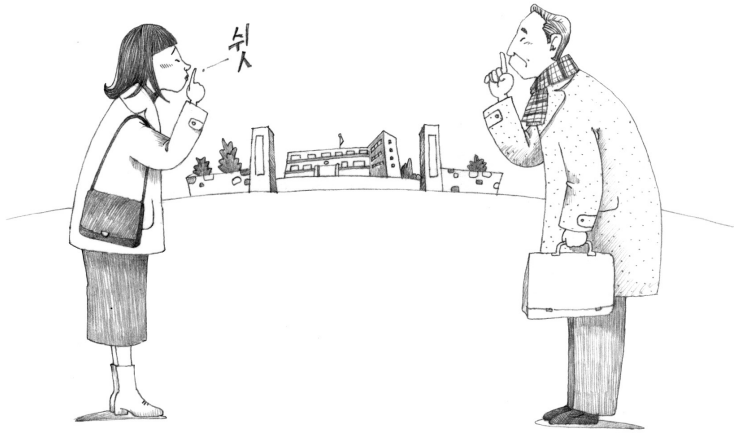
“꼭 그래야 하나?”

“몇 번을 말해? 우리가 같이 들어가 봐. 다들 내가 무슨 특혜를 받았나 의심부터 할 거라고. 내 인생 첫 직장인데 신입견 가지게 하고 싶지 않다고!”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건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더 잘 알아.”

“그건 아빠 생각이지. 아무튼 난 아빠랑 모르는 사이니까 오늘 아빠도 잘 협조해 줘!”

딸은 몇 년 동안 임용시험 공부를 한 끝에 최종 합격을 해 드디어 첫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첫 발령지가 하



필 남편이 2년째 근무 중인 곳이지 뭐니까. 남편 직장은 차로 1시간을 달려가야 하는 먼 곳인데 하루 두 시간 출퇴근하는 게 쉽지 않아 남편은 이번에 근무지 이동 신청을 했고 집 근처로 이동이 됐어요. 하지만 2월 28일까지는 근무해야 하는데 딸이 덜컥 남편 있는 학교로 발령을 받은 겁니다.

물론 딸은 3월 2일부터 근무니까 서류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정식 출근하기 전에 신규 임용자들은 학교를 미리 방문해 인사하고 전임자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받아야 해요. 딸이 인사해야 할 윗분이 바로 남편입니다.

아웅다웅하며 집을 나서는 두 사람을 보노라니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무슨 시트콤에나 나올 법한 상황이 우리 집에 일어나다니 웃기면서도 걱정되더군요. 괜히 그러다 들통이라도 나면 무슨 우사란 말입니까. 종일 두 사람 걱정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니다. 중간에 전화 한 통 해주는 법 없이 남편과 딸은 저녁이 되어 돌아오더군요.

“별일 없었어? 사람들이 눈치챈 건 아니고? 당신은 애 좀 잘 챙겨줬어?”

“모르는 척하라는데 뭘 어떻게 챙겨줘?”

“그래도 인생 첫 직장이잖아. 얼마나 낯설고 어색하겠어?”

“내가 커피는 한 잔 타줬다.”

“넌 인수인계는 잘 받은 거니?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대해줘?”

“엄마! 있잖아~. 아빤 진짜 집에서랑 똑같더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말 붙이고 장난치고~.”

“어이구, 네 아빠가 그렇지. 엄만 종일 궁금해 죽겠더라야!”

“걱정하지 마. 우리 완벽하게 해냈어. 아무도 우리가 부녀 사이인지 모를걸.”

“사람들이 모르는 척해줬던 건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철판 깔고 연기를 했는데. 아빠가 나더러 ‘박 선생님~’ 그러기에 나는 ‘네 교감 선생님~’ 그랬지.”

딸의 표정이 밝은 걸 보니 학교 분위기는 괜찮았나 봅니다. 남편도 딸도 평소 눈 하나 깜짝 않고 농담을 던지면 맨날 저 혼자 웃고 난리가 나는데 막상 자기들은 웃음기 하나 없이 판청 피우는 사람들이니 찰떡 호흡으로 연기를 잘 해냈을 것 같긴 해요. 별일 없이 넘어갔다니 안심이었습시다.

그리고 3월 2일이 되었습니다. 남편도 새 학교로 출근했지만 제 모든 신경은 첫 출근을 한 딸에게 가 있었죠. ‘실수 안 하고 수업을 잘했나?’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 점심시간에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늘 별일 없었니? 학생들은 잘 따르고? 아유, 엄마 궁금해 죽겠어.”

“수업은 잘했지.”

“학생들은? 신규 교사라고 막 기어오르고 그러진 않아?”

“착해. 대답도 잘하고. 근데 말이야. 오늘 아빠가 학교로 화분을 보냈더라.”

“오! 딸 첫 출근이라고 신경 썼나 보네.”

“나한테 보낸 화분에 카드가 꽂혀 있는데 거기 ‘박 선생님 첫 발령 축하합니다’ 쓰고 ‘박 교감’이라고 했던데?”

“그게 뭐 문제 있냐?”

“아빠가 우리 학교 영어 선생님께도 화분을 보낸 거야. 건강이 안 좋으시거든. 근데 영어 선생님께는 ‘아빠가’라고 썼더라고.”

“에에?”

“영어 선생님이 자기 거랑 화분이 똑같으니까 와서는 둘이 바뀐 거 같다고 그러면서 웃던데.”

“어머머! 어떡한다니? 아우~”

“결국 교무실 사람 전부 다 알게 됐어. 사람들이 자꾸 나 보고 웃는데 이제 나 어떡해? 이럴 줄 알았으면 그날 연기 같은 거 안 하는 건데. 나 앞으로 학교생활 하기 힘들 거 같아.”

주말에 집으로 돌아온 딸은 학교 이야기를 끝없이 쏟아냈습니다.

“학생들도 아빠 얘기하더라. 국어 선생님이 전임 교감 쌤이랑 똑 닮았다고. 나 아무래도 아빠 그늘에서 영영 못 벗어날 거 같아. 사람들이 일주일 내내 아빠 얘기 꺼낸단 말이야.”

남편도 딸의 원망과 녀두리를 계속 듣고 있어요.

“아빠, 급식소 조리사님들이 밥 콩알만큼 먹는 것도 아빠랑 똑같대. 걸음걸이도 비슷하다냐? 아우! 나 진짜 너무 피곤해.”

피곤하다면서 입가에 웃음이 떠나지 않는 걸 보니 아빠가 전임 교감이었다는 게 영 싫지만은 않은가 봅니다. 남에게 창피한 아빠는 아닌 거 같으니 정말 다행입니다.

## Letter 13

##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박준규 | 서울 중랑구 신내동

저는 아내와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녀  
 녀치지 못한 집에서 태어나 지방 국립대에서 건축학을 전공했  
 지요.

빨리 독립하고 싶어 무작정 서울로 올라와 친구 자취방에 빈대 붙  
 어 살면서 직장을 알아봤지만 지방 출신이라 취업이 만만치 않았습니  
 다. 어렵게 취업했지만 적성에 맞지 않아 1년 다니고 이직했습니다.

이직한 사무실에서 MBC 라디오를 매일 듣게 되었고 아내도 만났  
 습니다. 아내가 저의 고참이었어요. 이직한 사무실은 공동주택, 즉 아  
 파트를 설계하는 회사였고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기업 아파트를 설  
 계했습니다.

일이 많아 6개월 동안 8개의 프로젝트를 하면서 숙식도 사무실에  
 서 거의 했던 것 같습니다. '도면을 찍어 낸다'는 말이 맞을 정도로 일

하며 배운 게 많았지만 요즘 사람들에게 그렇게 일하라고 하면 그만 두거나 노동부에 신고할 겁니다. 사무실 근처에 방을 얻었는데 몇 달 만에 집에 갈 때는 못 찾을 때도 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회사가 일 많다고 무리하게 확장하면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라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포함해서 저희 팀은 회사에 들어가지 않고 프리랜서로 일하며 여러 가지를 배우고 경험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실력을 모르니 저희를 쓰지 않아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우연히 메이저급 회사 일을 하면서 일명 잘나가는 프리랜서가 되었고 여기저기서 불러주기 시작했죠.

보수도 3배 이상 받았는데 그만큼 일은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침 9시에 출근하면 막차 끊기기 전까지 일하며 인정도 받고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그때도 늘 MBC 라디오가 함께했습니다.

그렇게 15년이 흐르고 주변에서는 건축사 자격증도 있으니 회사 차리라고 그러면 일을 주겠다는 회사도 많았어요.

한쪽에서는 “무슨 일이든 학연, 지연을 무시 못 하거든. 그래서 일 따기가 힘들어”라고 조언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자! 실력으로 보여주자!’라는 마음 하나로 건축사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첫 프로젝트는 대기업 건설사 아파트였습니다. 계획부터 시작해서 공사 도면을 그리고 관공서 인허가 업무까지 모두 수행하며 매일 야근하고 주말도 없이 일했습니다. 하루하루 공사가 진척되는 모습을 보며 완공 후 누군가 입주해서 살 것을 그려보니 감동과 보람이 밀려왔습니다.

관련 업체와 관공서에서까지 설계에 대한 칭찬이 많았습니다. 지방이지만 분양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처리할 일이 너무 많아 힘들

었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비록 용역 설계 건이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학연이나 지연 같은 것 없이 실력으로 보여주다 보면, 우리 회사 이름으로 짓는 건물도 있으리라 그날을 꿈꾸었습니다.

법을 많이 다루다 보니 전원주택을 지으려는 분들이나 공동주택 입주 전에 관련 법령을 확인하려는 분들이 많아 도움을 드리려고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고 같이 고민하며 알려드리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구촌 재앙이 시작되었지요. 건설뿐 아니라 모든 업종에 피해를 준 코로나19 때문에 1년 수입이 400만 원도 안 된 해도 있습니다. 나라에서 지원을 조금 해주었지만 저희는 전문직이라 지원받지 못했고 계약한 업무가 무기한 연기되거나 취소되었습니다.

4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는데도 건설 경기와 나라 경기는 아직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주변에서는 조금만 더 견디라고 버텨야 살아남는다고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버티오며 늘어난 건 빚밖에 없습니다. 결국 한계에 다달아 당장 공과금도 내기 힘든 지경까지 왔습니다.

대학교 졸업 후 25년 세월을 돌아보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지금은 운전면허증보다도 쓸모없는 건축사 자격증을 보며 '건축을 하지 말았어야 했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매일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제는 모든 걸 정리해야 하지만 솔직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파산, 회생 등을 알아보며 만감이 교차합니다. 세상에 신이 있다면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빌고 싶습니다.

저희같이 어려운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저희는 비록 이렇게 꿈과 희망을 접어야 하지만 다른 분들은 조금만 더 힘내서 꿈과 희망을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Letter 14

# 쉰다섯 살도 가능한 이야기

김혜란 | 파라과이

**20** 14년에 왔으니 이제 십 년 됐습니다. 친정엄마의 눈물을 뒤로한 채 고국을 떠난 가족이 남미의 심장 파라과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우리 가족에게 적용되는 것 같았어요.

계약으로 일하러 왔건만 2년 만에 일터를 떠나야 했고 한국으로 돌아가자니 상황이 여의잖아 파라과이에서 살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남의 집 더부살이도 했어요. 사정을 딱하게 보신 선교사님이 창고 딸린 집을 내어주셨고 “대신 창고 안의 옷감을 도둑맞지 않게 지켜주세요~”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가질 부담감과 죄송함을 누그러뜨려 주셨어요.

그 집에서 2년을 더 살면서 부지런히 살길을 찾았어요. 우선 지출을 줄여야 했으니 아이들 학교를 사립에서 무료인 공립으로 바꾸었어



요. 차도 없으니 무조건 걸어 다녔어요. 더운 나라에서 꼭 있어야 한다는 에어컨도 딱 하나만 사서 온 가족이 옹기종기 방 하나에서 같이 잤지요. 지금도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저는 이런 절제의 삶이 싫지 않아요.

두 아들은 군 복무와 대학 진학을 위해 서울로 갔고 우리 부부만 남았는데 저는 파라과이에 머물고 싶습니다. 50대 중반에 재취업에 도전하여 성공했거든요. ‘주파라과이 한국교육원’에서 일하게 됐어요. 딱 일 년 지났는데 어제는 교육원에서 2023년의 마지막 교사 회의를 가졌답니다. 매달 한 번씩 모여 현지 학교에서 어떻게 한국어를 가르쳤는지 보고하는데 여기는 11월 말에 모든 학교가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좀 특별한 일을 했어요. 바로 교재 수정 작업의 결과 발표를 제가 했어요. 우리 교육원에서는 유·초등부터 고3까지 13개 학년 학생을 한국인과 파라과이 현지인으로 구성된 스무 명의 교사가 각각의 학교로 파견돼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교육원에서는 교재를 자체 개발하여 쓰는데 초임인 제 눈에도 문제점이 보였어요. 수정 작업이 녹록지 않아 감안하면서 사용해 왔다고 하더군요. 저는 성에 차지 않아 자료를 찾고 파워포인트로 보조교재를 만들어 사용하며 1년을 보냈는데 다른 선생님 한 분이 같이 수정 작업에 참여하게 되어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우선 국립국어원에 교재 검토를 의뢰해 결과를 받았어요. 그냥 수정 내용만 바꾸면 되려나 싶기도 했지만 국립국어원에서 보내주신 검수 결과와 현장에서 쓰는 단어에 상당한 차이점이 있어서 그 차이점을 다른 교사들 앞에서 발표하고 내용을 공유하라는 원장님 지시 하에 우리 아들이 가르쳐준 파워포인트로 교재를 만들었지요.

제가 할당받은 ‘중고등 한국어’ 여섯 권은 한 권당 약 100페이지라



모두 600페이지가량의 적잖은 양이지만 간략하게 줄여 15분 동안 발표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사진을 찍는 교사가 있는 반면에 지루한지 조는 교사도 있었지만 개의치 않고 열심히 발표했어요.

“게시판에 공유해주세요.” “이런 시간 더 많이 가지면 좋겠어요~”라는 평을 들었습니다.

이곳 행정원은 제게 일을 맡길 적마다 “운전하실 수 있으세요?” “이것 가능하시겠어요?”라며 나이 들었음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건넸지만 저는 이겨내고 싶었어요. 스페인어를 잘하지 못하니 현지 학

교의 교사들과 소통이 어렵고 정보가 부족해서 학교 쉬는 날인데도 출근해 굳게 닫힌 교문 앞에서 망연했던 일도 있었어요. 그럴 적마다 언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할 명분을 발견했지요.

‘수업 계획안’ 같은 ‘플라닐라 데 프로세스’라는 것을 엑셀로 정리해 제출해야 하는데 선배 교사들에게 물어도 이상하게 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게 속칭 선배들의 갑질인가 싶고 이리 밀어내고 저리 밀어내니 제가 축구공 같았습니다. 결국 현지 학교의 코디네이터와 평가관들을 찾아가 손짓, 발짓, 구글 번역기까지 동원해서 서류 처리하는 법에 대한 제 의문점을 묻고 비로소 해결했으니 이제야 눈에 확 들어오는 방법이 저에게는 보물처럼 귀하기만 합니다.

매달 두 번째 주에 받는 월급날도 신기합니다. 외국에서 내 몸을 움직여 돈을 벌고 세금 내고 식재료 사서 밥해 먹고 시부모님께 다달이 용돈도 드리게 된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시어머니께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께 못한 효도를 이참에 하고 싶고 비록 적은 돈이지만 꾸준히 드릴 수 있게 이 일을 오래 하고 싶어요.

“우리 매느리 주는 돈에서 향이 난다 아이가. 우찌 이리 좋노?”

향을 향이라고 하는 말쑈에서 고마워하시는 어머니 마음을 느낍니다.

저는 아버지를 닮아 머리가 거의 백발입니다. 실제 나이보다 열 살은 더 들어 보이건만 흰머리 너풀거리며 다녀서 현지 학생들이 할머니라 부를 때도 있어요. 하지만 겉모습에 주눅 들지 않고 쌓아가는 실력으로 보여주자 다짐하며 열심히 살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참으로 떠나면 땅, 때론 기온이 40도가 넘어서 사람 살 곳인가 싶게 힘들지만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맞서서 다스리는 법을 배우며 힘을 냅니다. 쉰다섯이지만 가능한 일들이 있으니 여러분도 힘내세요.

## Letter 15

# 철길 위 결혼반지

정학재 | 서울 강남구 광평로

**20** 23년 12월 12일은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 25년을 맞이한 날입니다. 결혼식을 평온하게 치르고 싶던 저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약현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서울 역 뒤편 언덕에 자리 잡은 약현성당은 참 운치 있는 곳이지만 언덕 꼭 대기에 있어 골목이 좁고 경사가 가파른 곳이었습니다. 더욱이 결혼식 당일에는 함박눈이 펄펄 내려 오가는 길에 차가 뒤엉키고 하객들은 길을 오르내리며 미끄러지면서 겉으로든 속으로든 한마디씩 하는 시끌벅적한 결혼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소란스러웠지만 함박눈 올 때 결혼했으니 무탈하게 잘 살 거라는 안도도 잠시 신혼살림을 차린 지 꼭 일주일 만에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결혼반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제 근무지는 강남구 매봉역 부근이었습니다. 이수역 근처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한 저는 2호선과 3호선으로 두 번 환승해야 하는

데 사당역에서 교대역은 예나 지금이나 지옥철이었습니다. 그날도 여전히 사람이 많아 문 앞에서 있던 저는 서초역에서 내리는 승객을 위해 내렸다가 다시 타야만 했습니다. 엉덩이로 밀어가며 겨우 지하철에 다시 탔는데 갑자기 문이 닫히면서 제 왼손이 문에 끼고 말았습니다. 열차가 달리기 시작하자 당황한 저는 있는 힘을 다해 재빠르게 왼손을 뺐습니다. 손이 빠져서 안도한 것도 잠시!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손은 무사했지만 네 번째 손가락에 끼고 있던 결혼반지는 문틈에서 빠지지 못한 것입니다. 양쪽 문 고무 패킹에 딱 끼어 손으로 빼려 해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애태우던 저는 안쪽 포켓에 있는 볼펜을 꺼냈습니다. 문이 열려 반지가 떨어지기 전에 걸겠다고 생각한 순간, 열차가 커브를 돌면서 문틈이 벌어져 달리는 열차 밖으로 반지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아, 딱 일주일 끼고 있던 반지를 잃어버리다니! 어려서부터 집 밖에 돌멩이라도 주워 왔으면 왔지 내 거를 잃어버리는 건 있을 수 없던 저는 엄청난 낭패감에 빠졌습니다. 그것도 결혼반지를 잃으니 마치 아내를 잃은 것처럼 너무나 허망했습니다.

교대역에 내려 오가는 인파 속에서 망연자실해서 철길만 바라보다가 역무실에 찾아갔습니다. 제 계산으로는 서초역과 교대역은 약 500미터 내외로 아주 짧은 구간이니 열차 레일에 들어가면 찾을 수 있으리라는 실낱같은 희망을 품은 것입니다. ‘내 반지는 조그맣긴 해도 다이아몬드가 박혔으니 빛을 받으면 어두움 속에서도 찾을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했습니다.

교대역 역무실에 들어가 사정을 조곤조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가 산타에게나 보낼 법한 눈빛으로 찾아주기를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역무원들은 모두 난감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

다. 그때 어떤 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잠시만 저 좀 보실까요?” 하고는 저를 구석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부역장입니다. 쉽지 않겠지만 한번 해봅시다. 열차 운행이 종료되어야 하니 자정이 넘어서 오십시오. 저랑 같이 찾아봅시다.”

저는 구세주 같은 부역장님께 몇 번을 절하고서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회사에서 컴퓨터 앞에 앉으니 자판에 동그라미가 모두 반지처럼 보이고 펜을 손에 쥐면 다시 반지가 떠올라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습니다. 시간이 어찌 흘렀는지 마음속으로 서초역과 교대역에 레일만 수십 수백 번 오가다 자정이 다가와 교대역 업무실로 찾아갔습니다.

부역장님께서서는 그때까지 퇴근을 안 하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열차가 종료된 시간을 기다려 레일로 내려가서 반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깜깜한 레일 위를 랜턴을 비추며 랜턴 빛보다 더 두 눈을 반짝이며 눈두덩이에 힘을 주고 반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걸음을 옮기면 옮길수록 저는 불가능하겠다는 불길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레일 위는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어두웠고 새까맣고 자갈한 자갈이 많아서 반지가 자갈 속에 박히면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라도 찾기 힘들 것 같았습니다. 한 200미터 지나서일까 부역장님께서 제게 물었습니다. “찾기가 쉽지 않겠죠?” 짐작은 했지만 막상 부역장님 말씀들을 들으니 터널 저쪽의 시커먼 어둠이 제 가슴속으로 밀려와 속을 시커멓게 태웠습니다.

‘겨우 1주일밖에 안 됐는데... 우리의 사랑의 징표이자, 의지이자, 선언인 결혼반지를 잃어버리다니!’

저는 아내의 얼굴을 떠올리며 부역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10미터만 더 가보면 안 될까요?”

고마우신 부역장님은 저와 10미터를 더 가주셨지만 그러나 반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애타는 마음을 접고 뒤돌아선 순간! 철로 오른쪽에 사뿐히 놓여있는 결혼반지가 보였습니다. 간절함에 헛것을 본 걸까 의심할 정도로 반지는 정말 전시장에 일부러 예쁘게 놓인 것처럼 까만 자갈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와아아아아~ 찾았다!”

괴성에 가까운 저희 환호성은 야밤의 지하철역을 찌렁찌렁 울렸습니다. 마치 개선장군처럼 웨딩마치에 맞춰 행진하는 것처럼 결혼반지를 끼고 철로를 걸어 나왔습니다. 그날 집에 오자마자 저는 결혼반지를 손에 꼭 낀 것처럼 아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여느 부부들처럼 저희도 25년 부부로 사는 동안 우여곡절과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한 적도 있었고 아이들 키우며 애태운 적도 많았습니다. 그 고비마다 저희는 결혼반지의 의미를 되새기며 노력해 왔습니다. 결혼 25주년을 맞아 묵묵히 제 곁을 지켜준 아내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10년 동안 ‘미세변화 신증후군’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질병을 잘 극복해 준 내 사랑 김민주 씨에게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잃어버릴 뻔했던 결혼반지를 다시 찾게 도와주신 교대역 부역장님께 25년 동안 내내 손가락에 반지를 볼 때마다 감사해 왔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내 사랑 김민주 씨!

내가 재작년 11월 27일 29년 9개월간의 직장에서 퇴임해서 당신과 우리 아들 호준이, 진우도 당황하고 힘들겠지만 우리 잘 극복하고 금혼식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로 살아가요. 사랑합니다!

## Letter 16

##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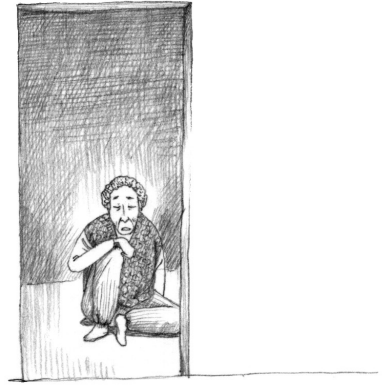
김병순 | 부산광역시 동래구 종합운동장로

**작** 년 말까지 어려운 이웃 세 집에 일주일에 한 번 반찬을 나눠 드렸다. 우리 관내가 아닌 이웃 동이라 처음에는 주소를 가지고 찾아갔다.

처음 간 집은 54년생 남자 어르신 댁인데 다른 봉사자와 둘이 갔다. LH 임대 원룸은 비교적 깔끔해서 일단 안심이 되었다. 반찬을 냉장고에 넣어 드렸는데 몸이 아파서 힘들다며 무료했는지 우리를 붙들고 많은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데 다음 집에 가야 하므로 다음으로 미루고 발길을 돌렸다.

두 번째 할아버지 댁은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었다. 집에서 약취가 나고 어수선해서 발 들여놓기가 내키지 않을 정도였다. 쓰레기장 같은 방을 봉사자들이 치워 드린다고 했더니 이대로 산다고 도리질을 하신다. 방안 가득 라면이 텅구는 걸 보고 밥을 드시라





고 하고 돌아서는데 “좀 더 있다 가지~”라고 하셨다. 그 말에 가슴이 찡했지만 다음을 약속하고 돌아섰다.

세 번째 어르신은 할머니인데 비교적 깨끗이 치워진 집, 그러나 몸이 너무 야위었다. 위암으로 위를 적출하고 소장으로 이어서 죽을 겨우 먹는다고 하셨다. 거실에 자전거가 있었다. 아들 건데 엄마가 아프다고 하니까 아예 발걸음 끊은 지 오래란다. 다행히 실비보험이 있어서 병원비는 할머니가 알아서 할 텐데도 하나뿐인 아들과 며느리는 자기네들한테 병원비와 간병 불뚱이 될까 봐 안 온다고 눈시울이 붉

어지셨다. 무어라 위로의 말을 못 하고 돌아서는데 자꾸만 고개가 뒤로 꺾였다. 여름부터 몇 달을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가지고 찾아갔더니 시간이 갈수록 허물없이 가까워졌다. 어느 날은 “병원 다녀올 테니 기다리고 있어”라는 쪽지도 걸어놓으셨다.

어르신들이 돌림노래처럼 하는 소리는 “아프다. 많이 아프다~”이다. 어느 날은 다른 일 미루고 퍼질러 앉아 얘기를 들어드리면 당신들이 살았던 지난 세월 속으로 푹 빠지신다.

이가 다 빠진 두 번째 어르신은 볼이 훌쩍하도록 담배를 빨아서 담배를 끊지 않으면 다시는 안 올 거라고 엄포를 놓았더니 담배만은 용서해 달라고 하셨다. 명치끝이 답답해진 예전 우리 할머니가 담뱃대를 볼 훌쩍하게 빨던 모습이 생각나 더는 말하지 않았다. 그분은 3개월 된 아들을 두고 아내가 집을 나가 버린 뒤 혼자 아들을 키웠는데 아이 5살 때 데려갔다고 얘기를 하며 눈가가 축축해지셨다.

지난번에 우리가 퍼즐과 색칠 책을 가져다드렸는데 대뜸 “우리 손자 쥐야지~” 하셨다. 깜짝 놀라 손자가 오느냐고 물으니 그건 아니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손자건만 본능적으로 아껴냈다가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자식을 5살 이후 한 번도 못 봤다는데 노인이 파묻은 그리움의 씨앗 속에는 자식이 있고 손주가 있으며 무심한 시간은 이 어르신을 지금 이런 슬픈 모습으로 데려다 놓았다. 어르신에게 마지막 방문임을 알리자 “청천벽력 같은 말일랑 하지 말어~” 하며 농담으로 받아들이셨다.

이 어르신은 하루빨리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데 아직도 이런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한 게 마치 우리 잘못 같다. 내년에 길 못 찾겠거든 전화하라고 그러면 마중 나오겠다 하시는 이가 빠져 더 슬퍼 보이는 할아버지. 주민센터에 들러 이 어르신을 잘 돌봐 달라고

부탁 또 부탁했다.

늘 “아프다, 아프다” 노래를 하시는 첫 번째 어르신은 이제 칠십인데 어느 정도 낮이 익자 스스럼없이 옷을 걸어 올리고 수술한 자리와 가려운 부분을 보여주었다. 수치심이 없어지는 것은 그만큼 우리와 가까워졌다는 증거일까. 이 어르신도 자식은 있으나 몇십 년 동안 찾아오는 이가 없고 거친 푸념 속에 버거웠을 삶을 짐작해 본다. 늘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있다 가면 안 되느냐?”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어르신. 이제 마지막 방문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더니, 그럼 이제 얼굴 못 보는 거냐고, 반찬도 반찬이지만 적절한 삶에 우리가 와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해 주니 너무 좋았다고 내년에는 당신이 반찬값을 줄 테니 다시 온다고 약속하라고 하셨다.

거실에 있는 자전거를 아들 보듯 바라보는 세 번째 할머니는 갈수록 몸이 마른다. 언제쯤 자전거 주인이 오려나 기다리는 눈치다. 늘 우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려고 애쓰는 어르신은 집안에서도 늘 모자를 쓰고 계시는데 항암으로 머리카락이 없어서란다. 마지막 방문하는 날, ‘목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며 그 무서운 ‘전이’를 이야기하면서 마치 가벼운 감기쯤으로 여기는 듯 얼굴에 잔잔한 미소까지 번진다. 그래서 더 슬펐다. 이제 저희 방문은 끝이라고 했더니 나를 와락 끌어안으셨다. 몸이 너무 앙상해서 눈물이 났다. “신이 계신다면, 이 어르신에게 건강을 주옵소서~” 기도를 올렸다.

며칠 후 어르신들에게 안부 전화를 드렸더니 보고 싶다고 빨리 오라고 하시는 음성에 그리움이 잔뜩 묻어 있었다. “다음 주쯤 호박죽 끓여 찾아가겠다”고 약속드렸다. 나도 아프고 힘들지만, 세상에는 이렇게 더 어려운 이웃들이 많기에 나는 올해도 이런 분들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련다.

## Letter 17

# 퇴사를 고려 중인 직장인분께

이수경 | 경기도 화성시 동탄기흥로

**저**는 2008년에 퇴사하고 음식점을 오픈했고 일산을 거쳐 현재 수원에서 칼국수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1990년부터 새벽엔 신문 배달, 야간에는 대리운전을 했고, 주간에는 중소기업에 다니다가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1시간 일찍 출근, 1시간 늦게 퇴근하고 휴무 날에도 출근할 정도로 열정적으로 일하며 인정받고 승승장구 임원이 되는 희망도 가졌지만 개인 사정으로 눈물을 머금고 2008년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퇴직을 하면 처음에는 동종업계 이직도 생각하지만 자영업도 고려하게 됩니다. 내가 잘하는 음식은? 가맹점은? 등등을 염두에 두고 사업구상을 하고 가게 권리금과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최소 6개월 치의 안정 자금과 생활비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죠. 퇴직금으로는 부족하니까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집을 전세나 월세로 옴

기고 그 돈으로 사업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처음에 가게를 오픈하면 1-2개월은 무난하게 넘어갑니다. 가족들과 친구들, 회사 동료들이 축하해주고 팔아주니까요. 그 후에는 진짜 맛으로 승부해야 하는 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대로 준비 없이 오픈하면 망하는 건 한순간입니다. 아이들에게 학원비를 못 주기도 하고 가게 월세가 밀리면 권리금과 인테리어 비용 등 투자금의 본전 생각에 가게를 접지도 못하고 걱정과 한숨으로 시간을 보내며 부부싸움이 잦아집니다. 이때 서로를 위해 주지 못하면 이혼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집에 방치되어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게임으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다반사지만 알면서도 신경을 못 쓰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미치고 환장할 노릇인지 경험자들은 잘 아실 겁니다.

‘다른 가게도 우리처럼 손님이 없나?’ 하며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오늘 뭘 잘못했나? 음식에 문제가 있나?’ 별별 생각을 다 하지요. 조류 인플루엔자나 구제역 등으로 매출이 급감하기도 하고 코로나19나 메르스 사태 때는 대출을 받아 생활하기도 하는데 1억 원 이상의 빚을 떠안고 매달 갚아나가는 가게들이 많습니다.

직장인은 연차, 하계휴가, 근속에 따른 포상휴가 등 휴가도 많지만 가게는 휴가는커녕 1년 내내 쉬지 않고 일합니다. 몸이 아파도 병원에도 못 갑니다. 알바나 직원들은 휴일과 휴식 시간이 있지만 주인은 그렇지 못합니다. 기껏해야 명절 연휴에 잠시 쉬는 게 전부지요.

밥 먹다가도 손님이 오면 별떡 일어나 주문받고 음식 만들고, 칼국수 한 그릇 먹으면서 7번 일어선 경우도 있습니다. 여름에는 콩국수를 파는데 하루에 3번씩 콩 삶고 껍질을 손으로 한 알 한 알 벗기느라 밤 11시 넘어서까지 일하고 잠도 부족합니다.

16년간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도 있습니다. 5-7세 아

이들이 직접 전해준 손편지와 초콜릿이 감동을 주고, 코로나19 때 엄마와 아들이 음식을 먹다가 아들이 나가자 곧 아버지가 똑같은 모자와 비슷한 색깔의 점퍼를 입고 들어와 남은 음식을 마저 먹고 가신 일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일화도 있어요. 치과의사는 담백한 옛날칼국수, 정형외과의사는 칼칼한 장칼국수, 한의사는 들깨칼국수를 좋아하십니다. 약사분들과 간호사분들은 가리지 않는 편인데 유독 이 의사들은 몇 년씩 메뉴를 바꾸지 않아요. 물론 의사 10여 분의 통계이긴 하지만 신기해서 관심이 갑니다.

달라진 풍경도 있습니다. 전에는 상사가 짜장면을 주문하면 더 비싼 메뉴를 주문하지 못했는데 요즘 MZ세대는 거리낌 없이 좋아하는 메뉴를 주문합니다. 가족끼리 식사할 때도 전에는 가장인 아버지가 가족 의사 상관없이 “뽕뽕뽕 주세요” 했는데 요즘은 아이들이나 엄마가 주문주도권을 갖습니다. 아빠의 주문주도권은 10%도 안 돼요.

마음이 불편한 사례도 있습니다. 아들 내외와 손주가 함께 식사하는 시골에서 올라오신 듯한 시어머니가 꼬깃꼬깃한 돈으로 먼저 계산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정엄마보다 시어머니가 계산하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시어머니가 “나는 배가 안 고프다. 너희들 많이 먹어라” 해서 인원수보다 적게 시키고 국물만 훌쩍훌쩍 드시다가 아이들이 남긴 음식을 폭풍 흡입하시는 일도 봤어요. 부모님 메뉴는 꼭 주문해 드리세요.

18년간 직장생활하고 16년간 자영업을 하며 느낀 점을 적어봤는데 제 경험상 장사는 회사생활보다 훨씬 어렵고 많은 희생이 따릅니다. 그러니 자영업을 준비할 때는 꼭 심사숙고하시라고 35년 청취자가 처음으로 사연을 적어보았습니다.

이달의 손편지

## 우리 아들이 변했어요

박경숙 | 전남 목포시 용담로

저희가 무척 아껴왔던 적이 엄청 길었었어요.  
아들 초등 1학년때 서울서 결국 실패 후  
신불자로 정말 저는 죽기보다 싫은 시댁으로  
그 아무도 없는 물줄로 내려왔죠. 그동안 힘들고  
정말 죽을만큼 힘들었던 얘기들은 이제 하고싶지도  
않아요.

그 나중에 아들은 열심히 공부해주고 고등학교때는  
우리가 그때 열심히 살아서 빚도 다 청산하고  
술만 술 정도로 티였어요.

서울에서는 공부를 좀 잘하면 무조건 서울대를  
보내려는데 그때만 해도 있었어요. 그런데 전  
권원이 되는거란 생각보다도 무조건 사관학교를  
가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학비가 안 들고  
복잡까지 다 되니까 그리고 아들이 운동도 좀

잘하고 했거든요. 그 때부터 사관학교 목표로 공부하러 했어요. 그리고 결국 공군사관학교를 가서 지금은 소령이 되었어요.

근데 사관학교 졸업하고 소위 임관하면서부터 근데도 제 별명이는 되는데 사관학교 입학 때 저희 남편이 신장암이어서 한 쪽 폐고 잘 이겨내나 했는데 백혈병이 또 발병했어요.

저 혼자 병간호는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여 전 마트 일하셨거든요. 근데 같이 일하던 정찰 천하의 든든한 언니가 있었는데 이렇게 아빠도 아프고 힘든데 증전적으로 집에 도움도 받을 수밖에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아들을 아주 불효자인듯 자주 말하곤 했어요.

전 아들에게 거의 해줄 것도 없이 혼자 애써서 그나마 그나마에 저 혼자 실험이나 모든걸 바느 가져가서 저에게 아무 도움 안 받고 혼자 독립한 것만 해도 너무 고마운데... 그다~나살 그때 남들은 아직 집에서 지원받는



아들들이 대부분인데 전 혼자 다 해내는 것도  
 너무 감사했는데... 자꾸 옆에서 그런 말을  
 해니까 아 그래가? 하하 저도 어느날은  
 알아서 겁이 드음 좀 주는데 맞나 그런 생각으로  
 좀 서운하기도 했었어요.

바른 여친도 있어 그날에 결혼도 했어요.

남편이 건강 찾고 조금 일 좀 하는데 또 재발해서  
 또 과병을 하고 살 수 있는 확률이 적다니까지 해서  
 저희 모두 마음 준비까지 했었거든요.

결혼 후 집이 사택으로 나올 수 있어 빨리 결혼  
 시킬 수 있었어요. 홀 아버지가 결혼한 모습도  
 못 볼까 해서요. 그런 아들은 바쁘니까 그리고  
 무섭도 해서 그야말로 전과는 생존보고예요  
 하고 할 정도로 하곤 했죠.

근데 우리 아들이 혼자가 되었어요. 남들이  
 인생할 정도로... 며느리도 자주 아들이 혼자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혼자가 되었는지 느낀게 요즘이예요.

저희들도 적년에 아들을 낳았거든요. 낳자마자  
 심장 수술이랑 힘들었지만 지금은 너무 건강히  
 크고 있어요. 그 아기가 곧 돌이 되었어요.  
 너무 감사하게요. 그 무섭하던 흉터도 자주  
 안 하던 아들이 아기가 생기기 거의 이틀이  
 걸리더니 영상 흉터를 해주고 머리는  
 바쁜 와중에도 아기 등영상을 찍어 일주일에  
 두세번은 보내주네요. 정말 힘든 일들이 다  
 반성 받는 것 같네요. 모든 힘든 일들이 다  
 사라지는 대작이... 이렇게 자주 등영상 흉터하는  
 것이 하루를 알차게 하네요. 너무 감사하고 ...  
 주위에서 다들 혼자 낳다고 부러워도 해요.  
 정말 아들도 그리고 꼬물꼬물 갓난이에서  
 점점 하루 다르게 커가는 손주를 보는데 이렇게도  
 행복한지 모름엔 낱마다 고민만으로도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아들, 손주, 머니 정말 감사하리 죽목하고  
 싶습니다. 같이 많이 죽목해 주세요.



## 여성시대 사진방



[8634] 저 기업은행 문 열기 기다렸다가 월간 여성시대 책 받아서 갑니다. 24년 1월호 받을 수 있어 행복한 아침입니다.



[6923] 작년 6월 30일 자로 30년 넘는 공직 퇴직 기념으로 딸한테 선물 받은 미니 라디오로 여성시대 매일 듣고 있습니다.



[7829] 눈사람 만들어 보았습니다.



[4751] 물류센터에서 생수 상차하면서 여성시대 들고 있어요. 생수는 겨울이 비수기라 여름 대비 물량이 반토막이네요.



[5232] 저는 매일 아침 우리 집 염소와 함께 여성시대 들고 있습니다. 염소들도 여성시대 들으며 행복해합니다.



[1642] 애호박 하우스입니다. 휴대폰으로 앱 깔아서 여성시대 듣고 있습니다.

# 오늘의 추억

글/그림 28

대구 광역시 달성군 유가면의

여성시대 가족 이윤정 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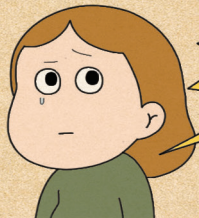
보내주신 사연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우리 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가다니  
너무 행복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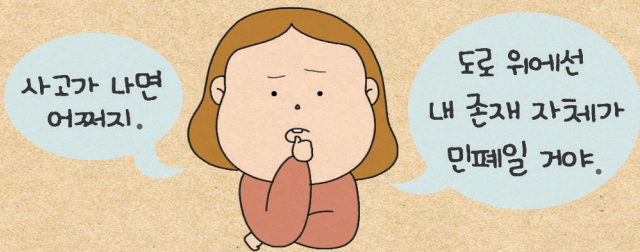


자신감이 바닥을 치던 취업 준비생 시기  
운전이라도 배워보라는 말은 가시처럼 다가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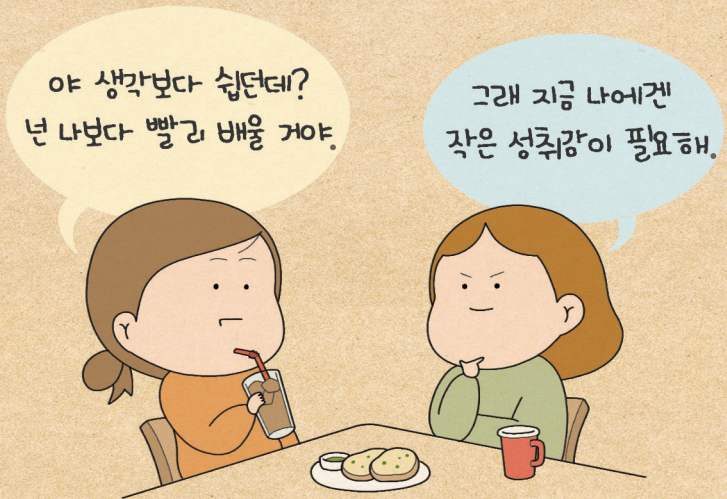


운전이라도 배워~

운전도 못하는 사람이 되기는 싫었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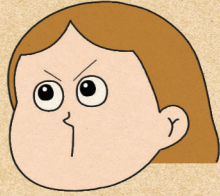


무서워서 좀처럼 용기가 나질 않더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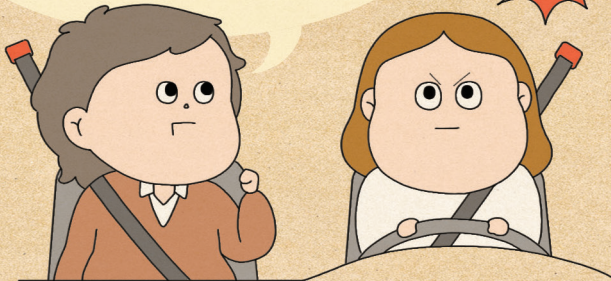
한없이 위축된 나를 위해  
응원의 말을 보내주던 친구의 말에 힘입어  
운전 연수 학원을 찾게 됩니다.

선생님! 저 운전석엔 처음 앉아보고요  
8년 전에 면허는 땀지만 장롱입니다.  
기계치에다 공간 감각도 떨어지고요  
워낙 겁이 많아요.



수업 첫날 두려운 마음에  
속사포처럼 말을 쏟아내던 내게  
강사님은 아랑곳 않고 말했습니다.

멈추는 건 내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는 건 윤정 씨가 봐야 해요.  
그것만 기억하고 천천히 가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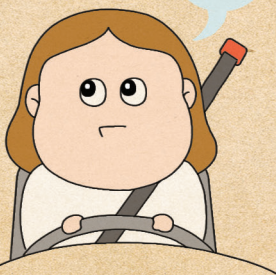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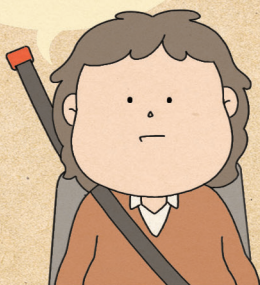


등줄기엔 땀이 흥건, 심장은 두근두근했지만  
엄청난 희열과 뿌듯함이 밀려들었어요.



정말 잘 하네.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면 금방 하게 돼요.  
윤정 씨는 일도 잘 하지?  
뭘든 빨리 배울 스타일이야.

늘 가던 곳처럼 가봐.  
마음을 쉽게 먹고.



넵.

쉬운 마음이라니  
실천해 보기도 전에 늘 어려울 거라고 지레 포기하던 나에게  
꼭 필요한 말 같았습니다.

앞으로도 안 가본 길을 더 많이 갈 나를 위한 응원  
지금도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면  
그때 강사님의 말을 떠올립니다.



# K-의료의 우수성으로 인류의 건강한 삶을 책임진다

IBK기업은행 여의도IFC지점 거래고객

**한국의료재단 김효상 원장**

글 | 장채순(자유기고가) 사진 | 이동진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말이 있다. 몸에 이상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방치하다가 증상이 발발하면 이미 늦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는 이유다. 국내 최고의 건강검진 시스템을 갖춘 한국의료재단은 질병의 조기 발견과 후속 진료를 통해 환자의 건강을 끝까지 책임지고 있다.

한국의료재단은 건강검진부터 치료까지 맞춤형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한다. 종합검진센터와 외래진료센터를 함께 운영함으로써 검진 후 치료가 필요하면 본원 외래진료센터에서 편리하게 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일원화한 것이다. 나아가 건강검진이나 진료 후 입원 및 수술이 필요한 경우 상급 병원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다.

“건강검진을 주력으로 하면서 외

래진료센터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 기관의 경우 대부분 건강검진 후에 외래를 따로 봐야 하지만 우리 센터에서는 검진 후 이상소견에 대해 바로 치료나 처방을 해주는 일원화 시스템으로 후속 관리를 통해 환자의 건강을 끝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료재단의 또 다른 장점은 타 검진 기관에 비해 하루 검진 환자수를 절반 정도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확하고 정밀한 검사를 통해 검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다. 검진 환자 수 대비 각 과의 의료진 수가 타 기관보다 많은 것도 한국의료재단의 자랑이다. 검진 환자 수는 적고 의료진은 많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고 판독하는 데 있어 더 정밀하고 밀도 있게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 때문에 환자의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완치하는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김효상 원장은 최신 의료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진의 실력이라고 강조한다. 한국의료재단은 임상경험이 풍부하고 실력 있는 의료진을 보유하고 있다. 일

례로 대장 내시경의 경우 일반적으로 성공률이 95% 정도밖에 안 되지만 한국의료재단은 100% 성공률을 자랑한다. 사람마다 대장의 모양이 다르고 유난히 꼬불꼬불하게 꼬여 있는 사람이 있어서 내시경이 끝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100명 중 4~5명은 실패하지만 한국의료재단에서는 아직까지 한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대장의 특성 때문에 평생 대장 내시경에 성공한 적이 없던 60대 환자가 한국의료재단에서 성공한 사례도 있다. 근 10여년간 한국의료재단을 꼭 다녔던 환자 중에 위암, 대장암으로 사망한 환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조기 발



견 사례가 높다는 것을 반증한다. 모두 의료진의 풍부한 경험과 뛰어난 실력 덕분이다.

“저는 항상 오늘도 최대한 많은 사람을 살리자는 마음가짐으로 진료를 합니다. 의사로서 사람을 살리는 일이 가장 큰 보람이죠. 검진을 통해 더 큰 병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완치될 때까지 책임지고 치료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늘 환자 중심으로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김효상 원장은 가장 힘들었을 때

를 묻는 말에 코로나19를 이야기했다. 검진을 통해 조기 치료하고 이미 검진하고 치료한 환자들은 완치되고 있는지 추적 검사를 해야 하는데 환자들이 병원을 찾지 못한 공백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병이 늦게 발견되거나 진행되어 오는 환자가 있어 안타까움이 컸다.

이처럼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한국의료재단은 의료서비스의 다각화를 위해 의료플랫폼 ‘메디컬렉션’도 오픈해 활발히 운영 중이다. 메디컬렉션은 국내·해외 건강검



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 TOP5 병원과 연계하여 국제 진료를 운영하고 있다.

IBK기업은행 여의도IFC지점 김성

순 지점장은 “한국의 대표적인 검진 기관인 한국의료재단이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의료재단 김효상 원장(왼쪽)과 IBK기업은행 여의도IFC지점 김성순 지점장

**! 한국의료재단 김효상 원장의 운영 노하우**

1. 건강검진과 치료를 원스톱으로.
2. 추적 검사를 통해 환자의 건강을 끝까지 책임진다.
3. 환자 수 대비 많은 의료진으로 정밀하고 밀도 있는 진료를 한다.

**한국의료재단**

원 장 김효상  
전 화 1544-2992

주 소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TWO IFC 4층, 5층  
홈페이지 <https://komef.org/>



## 50년 역사를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을 꿈꾸다

IBK기업은행 성수동지점 거래고객

**서안캠텍(주) 이승준 대표**

글 | 장채순(자유기고가) 사진 | 이동진

서안캠텍(주)은 표면처리 약품 제조기업이다.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뚫고 표면처리약품 산업의 국산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내수판매는 물론 전 세계에 역수출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올해 50주년을 맞는 서안캠텍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세계적인 기업으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서안캠텍은 1974년 이상갑 회장이 창업하여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했다. 청계천 작은 상가에서 화공약품 판매를 했던 이상갑 회장은 이후 서안캠텍을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 화학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였다. 10여 년간 유통에만 집중하다가 1983년 경기도 양주에 공장을 설립하고 국내 최초로 제조를 시작하였다. 당시 국내에 해당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설비가 없

어 이상갑 회장이 직접 기계설비 설계부터 제조 노하우까지 스스로 터득하여 기반을 마련하였다.

서안캠텍은 80년대 초반 섬유를 날염할 때 환원제로 쓰는 주석화합물을 제조하여 섬유업계에 유통하였다. 당시 국내 섬유 산업이 번성하던 때라 서안캠텍도 함께 성장했다. 이후 2001년 국내 최초로 고순도 황산동을 생산하였고 2009년 이용성 산화동을 생산하면서 최근 수요가



급증하는 인쇄회로기판(PCB) 시장에서 인정받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용성 산화동은 현재 서안캠텍의 주력상품으로 주로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PCB기판 도금에 사용된다. 서안캠텍의 산화동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으로 유통되어 스마트폰, TV, 노트북에 들어가는 PCB기판을 비롯해 반도체 도금에도 사용되며 현재 국내시장점유율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저희가 산화동을 개발할 때에는 국내에 제조사가 없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일본산 제품을 사용했는데 저희 서안캠텍이 산화동을 제조하여 유통함으로써 협력업체에 공급

안정성을 보장하고 원가 절감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공을 인정받아 대기업 S사에서 협력업체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서안캠텍에서 제조하는 화학제품은 어느 한 산업군에만 한정되어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구리화합물을 예로 들자면, 전자기기 부품 도금뿐 아니라 구리 함량에 따라 액세서리나 장식 도금에 사용되기도 하고 목재방부제, 농약, 안료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이처럼 많은 산업군에 이용되기 때문에 다양한 고객사를 가질 수 있어서 회사를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상갑 회장에 이어 앞으로 서안



캠텍을 이끌어 나갈 이승준 신임 대표는 대기업에 근무하며 해외무역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안캠텍의 글로벌화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서안캠텍은 예전에는 수입해 유통하던 화학제품을 역으로 수출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가까이는 대만, 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부터 멀게는 멕시코, 브라질, 미국, 유럽까지 수출하며 세계적으로 고객사를 확장하고 있다.

“화학제품을 제조하다 보니 환경

문제와 직결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전과 달리 현재 환경법이 강화되고 규제가 많기 때문에 제도를 준수하며 질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환경과 안전을 모두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을 계속해서 구축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아직도 해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이 많은데요, 기술력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IBK기업은행 성수동지점 박중구 지점장은 “서안캠텍은 수입에만 의



존하던 화학제품을 직접 제조하여 국내 소재산업을 육성한 선구적 기업"이라며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해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고객사의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모범적 기업"이라고 자랑했다. 아울러 "IBK기업은행이 경

영전략 컨설팅 및 탄소 배출 관련 ESG 경영 지원 컨설팅을 통해 서안캠텍의 발전을 응원하고 있다"며 "올해 50주년을 맞는 서안캠텍이 앞으로 100년을 넘는 기업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IBK기업은행 성수동지점 박종구 지점장(왼쪽)과 서안캠텍(주) 이승준 대표

### 1 서안캠텍(주) 이승준 대표의 운영 노하우

1. 시대에 따라 변하는 환경에 맞춰 카멜레온처럼 변화하라.
2. 안전을 최우선으로 항상 긴장하라.
3. 고객 만족을 위해 항상 귀 기울여라.

#### 서안캠텍(주)

대표 이승준

주소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103 영동테크노타워 807호

전화 02-465-1511~3

홈페이지 <http://www.seoanchemtec.com/>

## 코너 속 편지

### 주말엔 투유

- 81 나의 요리 선생님
- 85 명예퇴직 하신 아버님
- 89 시어머님의 생신을 축하드리며
- 91 두 번째 엄마
- 94 복권 같은 나의 당신
- 97 나의 롤모델 엄마
- 100 너희와 이렇게 지내고 싶어
- 103 입대한 아들이 만들어준 추억
- 106 아빠는 요리사





주말엔 투유

## 나의 요리 선생님

고의순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추위에 따끈한 차 한 잔이 그리워지는 계절입니다. 강사님, 편안하시지요? 조금은 민망하고 축스럽기도 하지만 제 마음 전하고 싶어 펜을 들었습니다.

짧지만은 않았던 지난 3개월, 온종일 꼬박 긴장 속에서 또 한편으로는 즐거움과 기대감에 부풀어 서양 음식 서른 가지를 만들던 푸드 2교실에서의 정들었던 시간을 뒤로하려니 후련함보다는 아쉬움이 큼니다.

저는 지난해 10월 가족들을 모아놓고 선포했지요. 앞으로 주말의 모든 행사를 일절 안 하고 ‘양식조리기능사’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투명 인간이 되겠노라고요. 착한 아들은 “엄마가 이상해졌다”라며 고개를 갸웃하면서도 엄지척 응원해 주었고 입담이 좋은 딸은 집안 애경사는 자기가 다 도맡아 할 테니 “엄마, 주말에는 오로지 요리만 하세요”라고 성원해 주어 뿌듯한 마음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



습니다.

사실 '직장인 가정주부'가 주말마다 쉬지 않고 수업받으러 다니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요. 불쑥불쑥 날아드는 청첩장과 부고도 늘 제 신경을 울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왕 결심했으니 나를 위해 3개월간은 욕 좀 먹자' 하는 각오로 토요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양식조리기능사 수업은 한식 수업과는 다르게 과제명부터가 입에 불지를 앓아 시작부터 난관이더군요. 양식 과제는 단조롭고

쉬운 것 같지만 요리할 때면 꼭 한 가지씩 재료를 빠트리는 바람에 자책하며 낙심하기도 했고 수업 전에 미리 동영상도 보고 요점 정리 노트도 보며 나름 준비를 해도 강사님이 질문하실 땐 왜 답이 입안에서만 뱅뱅 도는지. 그래도 다행이었던 것은 말로만 듣던 서양 음식을 엄마가! 아내가! 손수 만들었다는 사실에 식구들은 신기해했고 독특한 비주얼로 눈 호강한다며 자잘한 칭찬을 해주어 전 우쭐했습니다.

존경하는 강사님! 요리에는 순서가 있고 계량도 잘해야 좋은 음식이 만들어진다는 기본 원리도 모르고 그저 재료를 많이만 넣으면 맛있어지는 줄 알았던 저에게 강사님의 가르침은 많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창피한 고백 하나 할까요? 사실 저는 달걀의 알끈 제거하는 법을 강사님께 요리를 배우면서 처음 알게 됐어요. 뽀족한 젓가락으로 알끈을 한 번에 잡아서 끊어내는 강사님의 모습이 어찌나 멋지던지 그날 강사님의 포로가 되어 버렸지요. 그리고 저는 요즘 알끈 제거에 재미를 붙여서 아침마다 다섯 개씩 달걀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은 노른자를 수시로 터뜨리는 실수 연발이지만 계속하다 보면 언젠가는 저도 강사님처럼 누군가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달걀 알끈 제거 선수가 되어 있겠지요.

강사님 덕분에 외식으로만 먹던 스파게티도 이제는 만들 수 있고 수프, 샐러드, 햄버거까지 만들어 보았으니 이제부터는 좀 더 노력해서 실기시험에 전념하고자 합니다. 지금도 서른 가지 과제가 입에서 술술 나오진 않지만 더 열심히 해서 꼭 합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더 잘하고 싶고 더 예쁘게 만들고 싶은 마음에 수업에 열중했지만 마음만 바쁘지 아직은 많이 서툴러요. 차분하게 시범을 보이는 강사님을 따라 하다 보면 저도 금방 요리 하나를 똑딱 완성할 거 같은데

왜 저 혼자 하려고 하면 늘 머릿속이 하얘지는 걸까요?

그래도 강사님이 예쁜 목소리로 쉽고 재밌게 가르쳐 주셔서 거짓말 조금 보태서 월요일부터 내내 토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5일간 직장 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강사님과의 토요일 단 하루 수업에서 다 풀릴 만큼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부족하고 서투른 반장으로서 소임을 다해보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뒤돌아 생각해 보니 만족보다는 아쉬움이 크네요. 웃음이 넘치고 온기 가득한 푸드 2교실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김밥을 싸 가기도 하고 반찬을 싸가서 다 함께 밥을 지어 먹으며 공부 자료를 공유하면서 행복한 시간으로 채워보려고 했습니다. 토요일 아침마다 양손 가득 큰 가방 두 개를 들고 집을 나서는 저를 볼 때마다 딸은 보파리장수 같다고 놀리기도 했어요. 양팔은 무거웠지만 발걸음은 언제나 가볍고 힘찼습니다.

오늘 수업을 끝으로 이제 우리 수강생 14명은 각자의 일터에서 바쁘게 살아가겠지만 강사님과 푸드 2교실에서 피어오르던 따뜻한 사랑과 정을 떠올리며 행복한 추억을 간직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고맙습니다. 강사님! 그동안 보여주셨던 따뜻한 사랑과 관심 잊지 않겠습니다. 가끔 살짝 웃으며 그윽하게 바라봐주시던 백만 불짜리 미소도 오래도록 기억할게요. 비록 요리로서는 상위권 우수 수강생이 아니었지만 개근도 하고 열정으로 노력했던 수강생으로 기억해 주세요. 강사님과 작별 인사를 하려고 하니 몸에 온기가 온통 빠져나가는 듯 움츠러드네요. 언제나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행운과 기쁨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늘 멋진 정현화 강사님을 응원할게요. 우리 또 만나요!

- 양식조리기능사 종강식을 마치며 제자 고의순 올림

주말엔 투유

## 명예퇴직 하신 아버님

서선애 |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교로

존경스러운 아버님, 30년 넘게 몸담았던 인생의 일부와도 같다 하셨던 회사를 떠나고 상실감이 크실 아버님이 걱정되어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퇴직을 앞두고 계셨던 어느 날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심란해서 잠이 안 온다” 하셨던 아버님 말씀이 내내 머릿속을 맴도네요. 가장의 책임감과 무게로 지금까지 그 힘든 세월을 버티셨을 텐데 심란하시다는 그 말에는 또 얼마나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을지 제가 감히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말에서 아버님의 마음이 느껴져 이 편지를 들으시는 동안만이라도 앞날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감을 잠시 잊고 행복하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하나뿐인 며느리가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아버님을 떠올리면 그윽한 빛을 내면서도 마음을 울리는 따뜻한 석양이 생각나요. 아버님과의 첫 만남을 거슬러 올라가면 어느

뎡 했수로 17년 전이네요. 저와 남편이 고등학교 때 만나 9년 연애하고 결혼한 지 8년 됐으니까요. 17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아버님은 저를 늘 따뜻한 미소로 두 팔 벌려 안아주며 반갑게 맞아주시죠.

연애하는 기간에도 저희의 만남을 응원해 주셨고 살짝 시련이 있어 이별을 고민했을 때도 아들의 상황만 고려하고 위로해 주시는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더 좋은 방향, 더 나은 선택을 고민하라고 때로는 상대를 위해서 붙잡지 않고 보내줄 수도 있어야 한다고 강단 있는 조언을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들의 만남이고 아들의 마음과 안위가 걱정이지만 상대의 미래까지 걱정해 주긴 어려운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버님 덕분에 남편도 저도 그 모든 시련을 잘 이겨내고 이렇게 아버님의 하나뿐인 며느리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워낙 오래전 일이라 남편은 그 일을 잊어버렸겠지만 저는 그때도 진심으로 저를 생각해 주셨던 아버님의 깊은 마음에 늘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아버님께서 저에게 늘 농담처럼 “널 며느리 삼으려고 내가 공을 많이 들였다” 하시는데 저 역시 공을 많이 들여 주신 덕분에 사랑 넘치는 시댁에 공처럼 굴러들어 골인. 예쁜 딸 낳고 잘 살고 있네요.

어디서도 아버님이 저를 생각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마음에 확신이 있기에 주변에 자랑도 하고 자부도 하고 있어요. 비록 지금은 손녀 바라기가 되셔서 저는 2등이 되었지만 아버님이 손녀를 바라보실 때 너무나도 온전한 사랑이 다 느껴져서 저는 언제나 행복한 1등 같은 2등입니다.

아버님! 저희가 저희의 첫 집을 마련하면서 드렸던 말씀 기억하세요. 그때 드렸던 말씀처럼 남편과 저는 늘 변치 않으려 노력하고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모습 그대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사랑으로 매



일을 잘 살아 나가겠습니다. 약속해요!

그러니 아버님도 이제 무거웠던 모든 마음의 짐 내려놓고 아버님 건강도 챙기시면서 조금이라도 편해진 삶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생각은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되는데 걱정과 불투명하다고 느껴지는 미래가 아닌 앞으로 누리게 될 조금은 여유 있는 밝은 미래만 생각해 주세요.

아버님은 뭐든 이루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버님이니깐요. 저희 옆에서 손녀가 커가는 모습 지켜보시며 언제나처럼 저희가 시댁 문을 열었을 때 환한 웃음으로 두 팔 벌려 맞이해주세요. 약속해 주실 거죠!

그 긴 세월 거친 숨 고르며 달려온 길고 긴 마라톤 같은 경주의 결승점을 드디어 완주하신 아버님. 이제 거친 숨이 아닌 봄의 새싹과 예쁜 꽃, 여름엔 울창한 숲과 흐르는 물소리, 붉은 낙엽이 빙글빙글 떨어지는 가을과 나뭇가지에 쌓인 겨울 눈꽃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일

상의 소소한 여유를 되찾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동안 편치 않은 몸으로 일하시느라 정말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의 희생을 알면서도 너무 당연하게 흘러보냈는데 저도 아이를 키워보니 그 책임과 희생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절실하게 뼈저리게 느끼는 것 같아요. 아버님의 세월 그리고 보이지 않을 거로 생각하셨던 그 인내와 노력까지 존경합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저는 늘 제 주변에 자랑해요. 남편을 너무 잘 만나서 삶을 평온하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고요. 근데 편지를 적다 보니 제가 잘 만난 건 남편이 아니라 아버님 어머님이었네요. 아! 아버님도 저를 며느리로 들여서 행복하신 거 맞죠?

앞으로도 최고의 며느리가 되겠다고 장담 드릴 순 없지만 늘 최선을 다하는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항상 제가 던지는 농담에 잇몸 웃음으로 답해 주시는 아버님 감사해요. 제가 더 많은 웃음 드릴게요. 이 행복을 오래오래 저희 곁에서 함께해 주세요.

아버님이 은근히 돌려 얘기하시는 거 아는데 저에겐 직접적으로 너무 잘 들리는 둘째. 둘째 손주는 이뤄드리지 못할 것 같지만 아버님께서 몇 년 전부터 말씀하셨던 여성시대에서 이 편지가 소개되는 즐거움과 기쁨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버님, 명예로운 퇴직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사랑합니다. 남편의 아버지가 아닌 내 딸의 할아버지가 아닌 나만의 아버님.

[추신] 사연이 채택된다면 아래 내용까지 꼭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연에 어머님 얘기가 없어서 섭섭해하실까 봐요.

“어머님이 제게 큰 배려와 사랑을 주시는 것 알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사랑해요. 어머님!”



주말엔 투유

## 시어머님의 생신을 축하드리며

애청자

어머니, 오늘은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머니의 생신입니다.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특별하게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2021년 5월 처음 어머님을 뵈었을 때 어머니는 제 눈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으셨지요. 이미 만나기 전부터 식음을 전폐하며 저를 결사반대 하셨고, 그날은 저희에게 '결혼은 절대 안 된다' 말씀해 주시려고 저를 부르신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럴 만도 하셨죠. 당시 저는 이혼녀였고 이미 딸아이가 하나 있는 심지어 10살 연상의 여자였으니까요.

게다가 신랑은 어머님의 하나뿐인 아들이잖아요. 저도 사실 많이 죄송한 마음에 열심히 결혼까지 바라진 못했고 반대에 부딪혀 그냥 그렇게 헤어져도 괜찮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흘러 어찌저찌 여기까지 왔네요.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 안 된다고 하며 몇 주를 단식하던 어머니는 아들의 간곡함과 눈물, 고집에 결국 항복하고 저를 받아주셨지요. 그러고는 저와 딸아이를 아무런 편견 없이 아니 오히려 더 포용하며 사랑해 주시기로 마음을 먹으신 듯했습니다.

결혼하고 지금은 어머니님 댁에서 차로 5분 거리로 이사 와서 어머니께 많은 도움을 받으며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서 늘 감사하고 죄송해요. 특히나 작년에 태어난 귀여운 손녀딸 말고도 저의 큰아이까지 정말 지극한 사랑으로 돌봐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인지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 외할머니 손잡고 목욕탕에 갔던 것처럼 큰딸도 어머니와 목욕탕에 가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가끔 아이와 데이트한 다며 데리고 나가서 따로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예쁜 신발도 사주시고 제가 둘째 낳을 때도 큰애는 친정이 아닌 어머니님 댁에 가 있었잖아요. 처음으로 한 달이나 딸과 떨어져 지냈는데 딸이 한 번도 저를 보고 싶다고 울지 않고 어머니님 댁에서 사랑받으며 지내는 걸 보고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시다.

가끔 남편이 철없는 짓을 해서 미운 마음이 생겨도 저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점수를 만회해 주기도 할 정도로 어머니님은 제게 너무나도 특별한 저를 받아주신 은인이세요.

저도 더 어른이 되면 이렇게 최선을 다해 며느리를 사랑할 수 있을까? 늘 생각하게 하시는 너무나도 감사한 우리 어머니, 정미경 여사님! 어머니의 생신을 마음 다해 축하드립니다. 가진 게 너무나 없는데 드리고 싶은 마음은 커서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라디오 사연을 생각해 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돈 진짜 많이 벌어서 좋은 식당에서 맛있는 식사도 대접해 드릴게요. 어머니 감사드리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저희 앞으로도 사랑하며 잘 살게요.

주말엔 투유

## 두 번째 엄마

김예은 | 경남 양산시 물금읍

저에게는 엄마가 두 명 있습니다. 친엄마 그리고 저를 키워주신 큰 엄마예요. 제가 태어난 지 100일쯤 됐을 때 세상에 혼자 남은 저를 가엾이 여겨서 차마 고아원에 보내지 못했대요. 그렇게 큰엄마는 저를 떠안고 끝까지 키워주셨습니다.

유년 시절엔 그저 서러웠어요. 맛있는 반찬을 먹는 것도 괜히 눈치가 보여서 일부러 저녁 시간을 피해 집에 늦게 들어가곤 했지요. 어린 마음에 어른들을 많이 원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고등학교 때 처음 남자친구를 사귀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조카를 내가 키우는 게 가능할지 상상해 봤는데 그건 차마 못 하겠더라고요. 그때부터 큰엄마를 진심으로 사랑해 보기로 했어요.

눈 딱 감고 애교도 부려 보고 안 하던 행동들을 해봤어요. 공부 열



심히 해서 장학금도 타고 알바해서 집에 생활비도 보태고요. 남자친구와 데이트하고 나선 꼭 음식을 포장해 가고 큰엄마가 어디 아프다고 하면 병원에 모시고 가서 병간호도 하고 월급 받으면 용돈도 꼬박 꼬박 챙겨드렸어요. 그러자 큰엄마도 점차 마음을 열어주셨고 사촌 언니 오빠들도 곁을 내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사람들은 저처럼 안하고도 사랑받고 살던데 나는 아등바등 눈에 들려고 인정받아 보려고 애쓰고 사는 게 허무하고 싫증이 나더군요. 근 15년간 큰엄마 집에 생활비를 대다 보니 이 정도면 내가 은혜를 다 갚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 나쁜 생각을 가져서일까요? 큰엄마께서 갑자기 심장질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정말 죄송하고 후회스러웠어요. 감히 키워준 공과 그깟 돈을 비교했던 제가 어리석었던 게죠.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큰엄마는 저를 많이 사랑해 줬던 것 같아요. 잔소리는 많으셨지만 새벽 출근할 때면 베란다에 매달려 택시 탈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셨고 생일 때 미역국을 챙겨주진 않았지만 늘 깨끗한 유니폼을 입게 해주셨어요.

사랑이란 건 눈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닌데 왜 저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려 했을까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고 나서 시부모님께 최선을 다해요. 환생한 나의 새로운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면서요.

날이 추워지니 큰엄마께서 꿰어주시던 바지락 가득한 된장찌개가 그리워집니다. 큰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하늘나라에도 들릴까요?

큰엄마, 저는 지금 우리 아들에게 제가 받고 싶었던 사랑을 주면서 과거에 살지 않고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꼭 저를 잘 지켜봐주세요. 아기랑 남편이랑 행복하게 잘 살 테니까 거기선 저를 불쌍하게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이제 제 곁에는 남편도 있고 귀여운 아들도 있고 그리고 딸처럼 대해주는 시부모님도 계세요. 이렇게 예쁘게 저를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를 끝까지 내치지 않고 품어주어서 저도 사랑을 줄 수 있는 어른으로 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주말엔 투유

## 복권 같은 나의 당신

최종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나의 복권, 내가 사랑하는 부인, 당신은 복권의 의미를 아십니까? 복권에는 ‘대박’, ‘인생의 전환점’ 등의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나랑 하나도 맞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있지요. 그런 의미에서 당신은 나에게 로또 같은 사람이에요.

먼저 후자인 ‘나와 맞지 않는다’란 의미에서 예를 들자면 좋아하는 음식이 아예 다르단 겁니다. 달걀흰자는 당신, 달걀노른자는 저. 통닭을 먹을 때도 당신은 껍떡한 살, 저는 야들야들한 부위를 좋아하지요. 국을 끓여도 당신은 건더기만 건져 먹고 저는 국물만 먹어요.

이렇게 음식 취향 하나도 맞지 않는 당신과 20년을 넘게 살면서 우리는 다르기에 더 잘 맞는다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음식 취향이 다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을 수 있어서 싸울 일 없고 좋잖아요.

그렇게 우리 이제 결혼한 지 25년 차가 되네요. 당신도 알겠지만 우



리 집 가정형편이 어려운 탓에 저는 고등학교부터 대학교 다닐 때까지 7년간 아르바이트와 공부를 병행했어요. 대학교 4학년 때 IMF로 취업 길이 막히자 주변 선배들은 대학원, 자격증 공부,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지만 전 빨리 돈을 벌어야 했기에 바로 취업을 선택했습니다.

대학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조카 공부를 봐주다가 학습지 교사가 되었는데 그때 당신을 처음 만났죠. 동갑내기였던 우리 두 사람. 1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연애를 하고 28살 1월에 결혼했네요.

당신과 나, 각각 50만 원씩 1년간 모아서 인당 600만 원의 적금을 탔지만 갑자기 급성 허리디스크가 터져서 수술비용으로 300만 원 쓰고 300만 원으로 결혼하게 되었지요. 당신이 자금을 보태어줘서 우리가 결혼할 수 있었어요. 1,800만 원짜리 전셋집에 당신 돈으로 혼수를 마련하고 2001년, 2004년에 두 딸을 얻고 우리 지금까지 열

심히 살았네요.

출산할 때를 제외하고 일을 손에서 놓지 않던 당신. 심지어 큰딸을 가졌을 때도 9개월간 무거운 가방을 들고 방문수업을 다녔잖아요. 둘째를 낳고 나선 공부방을 운영했고 지금까지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당신을 보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부족한 남편에게도 아이들에게도 큰소리 내거나 화낸 적 없는 당신. 밖에서 기죽지 않게 저를 늘 칭찬해 주고 ‘최고다’ ‘잘했다’ 해주는 당신은 제게 너무나 고마운 사람입니다.

돈이 없어 신혼여행조차 못 가본 부인! 2010년 제가 갑상선암을 진단을 받았을 때 보험금이 6,000만 원이 나왔지만 형님과 누님 두 분이 필요하다고 하니 두말없이 빌려주자고 하는 부인! 장모님께 용돈을 보내드린다고 해도 “우리 엄마는 아직 돈 벌잖아” 하며 말리는 부인! 결혼한 지 25년이 됐는데 화장대 하나 없고 변변한 화장품도 없는 부인! 남편 기죽지 말라고 70만 원짜리 양복을 사주면서 본인은 오천 원, 만 원짜리 티셔츠 하나 쥐었다 놓았다 하는 부인! 남편이 차려주지 않으면 밥 한 숟가락 물에 말아서 먹는 부인! 오후 두 시부터 밤 11시까지 수업을 하면서도 얼굴 한 번 찌푸리지 않는 부인! 두 딸도 예쁘게 키워준 부인! 그렇게 25년 동안 부족한 남편과 아이들을 챙겨준 부인! 당신은 분명 제게 복권 같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제가 당신에게 갚으며 살려고 합니다. 못 해준 옷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더 많이 사주고 앞으로 더 사랑하려 합니다. 그동안 현비 엄마, 현서 엄마로 불렀는데 오늘은 이름을 불러주고 싶습니다.

변명희! 고마워. 일 마치고 저녁 대신 매일 맥주를 먹던데 술 좀 줄이고 우리 더 재미있게 살자! 나의 복권, 내 아내 변명희~ 사랑한다.



주말엔 투유

## 나의 롤모델 엄마

홍재원 | 부산광역시 동래구

엄마, 사랑하는 우리 엄마. 곧 있으면 엄마의 87번째 생신이 다가오네요. 생신 축하드려요. 그동안 우리 육 남매 키운다고 본인을 위해 뭔가 해 본 적 없으시잖아요. 요즘 노인주간보호센터에 간다고 좋아하시는 엄마 모습 보면 우리도 행복해요.

엄마, 그거 아세요? 난 어릴 때부터 엄마 같은 엄마가 되어야지 생각했어요. 이웃 사람들은 경사가 있을 때마다 요리 솜씨 좋은 엄마부터 찾았죠. 내 친구들도 엄마가 만든 음식이 제일 맛있다고 좋아했어요.

손재주도 많은 울 엄마. 뜨개질은 기본이고 수도 잘 놓아서 딸들 집에 십자수 작품들 전시하고 손자 손녀 이불 베개도 예쁘게 꾸며 주셨고요.

제 기억엔 책 읽는 것도 좋아하셨던 것 같은데 어릴 적 '캔디'가 나오는 만화책을 엄마와 함께 봤던 기억이 나요. 크리스마스엔 항상 우



리 육 남매 머리 위에 선물을 놓아두고 산타 할아버지를 믿게 하셨죠. 친구들한테 난 초등학교 때까지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다고 하면 다들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엄마는 우리에게 공부를 강요하지도 않으셨어요. 그저 해보고 싶은 게 있으면 다 해보라고 도와주셨지요. 육 남매 공부시키기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대단하세요. 내가 엄마가 되어 보니 돌도 힘들더

라고요.

못 하는 게 없는 엄마를 많이 존경하고 닮고 싶었어요.

지금에서야 엄마는 우릴 어떻게 키웠냐 물어보면 엄마는 그저 이렇게 답하셨지요.

“너흰 그냥 착해서 알아서 잘 컸어.”

우리가 엄마 아주 힘들게 했을 텐데. 못 하는 것 없고 마음 넓은 엄마를 닮고 싶어요. 엄마 같은 엄마가 되어서 자식들에게 화내지 않고 자식들이 언제든지 기댈 수 있는 친구 같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요리는 조금 흥내 낼 수 있게 돼서 내가 담근 김치를 엄마에게 줄 때 나 너무 행복해요. 사람들이 나 보고 음식 솜씨 좋다 해줄 땐 아직 엄마보단 못한다고 대답하지만요. 엄마 따라가려면 아직 먼 것 같아요. 뜨개질은 아무리 해도 영 나아지질 않네요. 그나마 수 놓는 솜씨는 엄마를 닮았는지 취미생활로 하고 있어요.

엄마의 기억들이 왔다 갔다 할 때면 다른 사람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우린 엄마가 어떤 모습이던 엄마를 사랑해요. 우리 기억 속 엄마는 소녀처럼 수줍고 맑은 사람, 책을 좋아하고, 음식도 잘하고, 못 하는 게 없는 슈퍼우먼이에요. 내 딸들도 엄마를 보고 외할머니는 아직도 소녀 같다고 말해요. 나도 엄마처럼 나이 들어갈 수 있을까? 언제든 보면 푸근하고 편안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늘 베풀고 나누며 살 수 있을까? 엄마처럼 나이 들고 싶어요.

엄마, 지금처럼 늘 우리 곁에 있어 주세요. 아빠도 엄마도 늘 지금처럼... 엄마 87번째 생신 축하드려요. 사랑하는 우리 엄마, 내년 생일도 그다음 생일도 제가 계속 챙길 수 있도록 건강하세요.

- 엄마를 닮고 싶은 넷째 재원이가

주말엔 투유

# 너희와 이렇게 지내고 싶어

이현선 |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로

딸아, 엄마는 늙으면 너희와 이렇게 지내고 싶어.

가능하다면 오솔길이 있고 가까운 거리에 산과 들이 있으면 좋겠어. 텃밭이 있거나 작은 공원이 있으면 더 좋을 거야. 너희를 입맞춤으로 깨워서 푸르른 녹음 싱그러움이 가득 풍기는 길, 이제 기지개 켜고 깨어나는 좁은 길을 너희와 산책해야지. 힘이 너희와 같지 않은 엄마는 여린 허리를 쪽 펴며 딸과 사위와 어린 너의 아이들을 앞에, 양옆에, 뒤에 세워 걸으며 듣기 좋은 동요도 불러볼 거야.

그리고 아주 싱그러운 푸성귀 채소로 아침을 준비해야지. 그다음엔 연하고도 향이 좋은 커피를 준비하고 네 아이들에게는 대추즙을 끓여 줄 거야. 대추즙 맛을 볼 때쯤 나는 성우가 돼서 아이들에게 많은 책을 읽어줄 거야. 네가 어릴 때 내가 해줬던 것처럼. 해가 높이 떠오르고 지표면에 강하게 난사될 때 우리는 감나무 아래 평상에 앉아 너의 어릴

적 얘기를 내 사위와 내 손주들에게 해줄 거야.

엄마가 늙으면 너희와 이렇게 지내고 싶어.

흙집에 반려견 두 마리를 땅에 내놓고 암탉이 따뜻한 달걀을 낳고 귀를 쫑긋 세운 채 강충강충 뛰어다니는 토끼들을 기르며 살 거야. 장미로 울타리를 엮은 정원에 채송화가 낮게 피어 있고 그 옆엔 구절초를 심고 또 그 옆에는 보라색의 도라지꽃을 심고 옆에는 수국을 심어서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꽃들과 대화하고 싶어.

봄이 되면 너와 네 아이들과 함께 윈피스를 맞춰 입고 들판에 나가 쭉과 나물을 캐 거야. 자운영을 따서 팔에 꽃시계를 만들어 차고 반지를 만들고 머리에는 월계관을 만들어 써볼래. 그 순간엔 어느 왕국의 여왕도 부럽지 않겠지.

여름엔 시냇가에 발을 담그고 다슬기를 잡고 긴 대나뭇잎을 따서 배를 만들고 우리의 소망을 담아 시냇가로 떠내려 보내고 싶어. 엄마도 아이들과 함께 천진난만하게 어릴 때로 돌아가 볼래.

가을엔 낙엽 길을 걸어보자. 역새가 핀 곳에서 가족사진을 찍을까? 사진 속에 엄마의 분신들이 이렇게 많으니 엄마는 너무 뿌듯해. 엄마가 세상에 태어나 가장 잘한 일은 너를 낳은 것이란다. 언젠간 너도 엄마와 같은 것을 깨달을 거야. '석양이 아름다운 것은 동쪽부터 서쪽까지 긴 여정을 걸어왔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란다. '붉은 노을' 황홀하기도 하지. 그렇게 아이를 낳은 부모도 긴 여정을 걸어가면서 아름다운 것이란다.

겨울엔 새하얀 들판을 발자국을 내며 걸어보자. 밤이 되면 네가 어릴 적 만든 작품들, 네가 썼던 교과서, 일기장들을 꺼내서 너의 아이들과 함께 보아도 좋겠다.

나 혼자 너를 기르며 남몰래 눈물을 흘린 날이 많았지. 매일 늦게까

지 어린이집에 혼자 남아 있던 너. 집에 와서도 엄마는 신데렐라처럼  
일만 한다고 투정 부리던 너. 엄마가 그 말을 듣고 펄펄 울고 싶었던 것  
을 너 모르겠지?

네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학부모 참여 수업’이 있던 날, 부모님에게  
선물해 주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발표를 했다. 다른 친구들은 아빠에  
겐 게임기, 엄마에겐 안경을 사주고 싶다는 식으로 대답하던데 우리  
딸은 엄마에게 아파트를 선물하고 싶다고 말했다. 순간 엄마는 당황스  
러워서 얼굴에 열이 났단다.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어. 눈치 빠른  
부모들은 아빠가 안 계신다는 것을 알았겠지?

네 앞에선 단 한번도 울지 않았는데 네가 3살 때 넌 한창 고열에 시  
달렸어. 종일 널 간호하고 뛰어다니다가 밤에 널 재우기 위해 침대에  
누웠는데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네가 잘못될까 봐 무서워서 눈물이  
글썽했거든. 그 모습을 봤는지, 넌 “엄마 왜 울라고 해?”라고 내게 물었  
지. 그 말에 고인 눈물이 쏙 들어갔단다.

엄마가 슈퍼우먼처럼 살아냈어도 엄마도 여린 여자야. 엄마는 너를  
낳았지만 넌 엄마를 키웠단다. 부모는 자식을 기르며 사랑을 배우고  
참을성도 배우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비로소 영혼이 깃든 어른이 된단다.

그러나 내 부모만, 내 아이만, 내 가족만 소중한 것은 아니야. 우리  
딸은 주변을 돌아보고 베풀며 살아갔으면 좋겠어. 감사할 줄 아는 것,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것, 자리를 양보하는 것, 따스한 시선으로 바라  
봐 주는 것, 힘이 되어주는 것. 이 모든 것을 행하며 엄마는 늙으면 너  
희와 이렇게 살고 싶어.

주말엔 투유

# 입대한 아들이 만들어준 추억

한윤주 | 경기도 군포시

아들아, 네 덕분에 또 하나의 추억이 생겼네. 그거 아니? 사실 엄마는 너랑 훈련소에 가면서 울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한 거였다. 어느덧 네가 다 커서 20살이 되고 군대에 가다니. 아기 같지만 하던 녀석이 언제 이렇게 컸을까? 과거에 갇혀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엄마는 어릴 적 네 모습을 생생히 기억하는 걸.

내가 밥 먹고 설거지를 하는 사이에 언제 올라갔는지 브라운관 TV 위에 올라가서 오줌똥 싸고 좋다고 해헤거리던 너를 보고 엄마가 얼마나 아꼈었는지 아니? 그 순간 우리 집만 정전되어서 무슨 일인가 했었어. 텔레비전 사이사이를 면봉으로 다 닦아도 수리비가 16만 원이 나왔지. 그때가 네가 2살 때였을 거야.

어릴 적부터 네가 기차를 너무 좋아해서 누나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집에 오는 길에 너랑 나랑 둘이 지하철역 의자에 앉아서 지나가

는 지하철을 보며 손을 흔들었지. 전철이 도착하고 갈 때까지 손을 흔들고 있는 너를 보며 답례로 손을 흔들어주던 승객분들도 종종 계셨지. 그렇게 한 시간 정도 돌이 지하철이 오고 가는 걸 지켜보는 거야. 그러면 그날의 기차 할당량이 끝났는지 그제야 집에 가자고 하더라도. 그때가 3살 때쯤이었나.

그리고 늦게 퇴근하는 아빠를 기다리다가 우리 같이 아빠를 마중 나갔잖아. 누나가 밀어주는 분홍색 장난감 소꿉 카트를 타고 지하철역까지 갔던 것도 네가 기억할까? 어떤 사람들은 밤 12시가 넘도록 아이들을 안 재운다고 엄마인 나를 홍보기도 하더라.

초등학생이 된 넌 놀이터에서 놀다가 중국집 아저씨가 배달하다가 떨어트린 전단을 들고 와서 냄새가 너무 맛있다고 우리도 여기서 시켜 먹자고 방방 뛰기도 했지.

너희들이 커감에 있어 집을 옮겨야 할 때쯤 네가 빨리 이사 가고 싶다고 이사 가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하던 모습도 떠오른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아마 살던 집이 너무 좁아서 그랬을까?

아! 그리고 이런 기억도 있다. 네가 중학교에 올라가서 한겨울에 너 혼자 등교하는데 교복 바지를 찾을 수가 없어서 여름 생활복 반바지를 입고 등교한 날! 엄마가 출근하느라 챙겨주지 못해 참 많이 속상했다. 다행히 담임선생님께서 네가 고생한 걸 알아주셔서 그나마 급식을 1번으로 받게 해주셨다고 했지. 뒤늦게 그 얘기를 듣고 너의 등쪽에 스매싱을 날렸지. 너는 엄마 손길이 마사지 같았니? 좀 시원했을까?

시간이 흘러 넌 입시에 대한 걱정과 다짐으로 고등학교에 입학했지. 고등학교 3년 내내 코로나19로 시작해 마스크와 함께 졸업을 했네. 격일로 등교를 하게 되어 너와 나 모두 힘든 시간을 보냈지. 코로나와 함께 넌 뒤늦은 사춘기를 겪고 우리는 가깝고도 먼 사이가 되어



버렸어.

그렇게 전쟁과도 같은 나날을 보내던 중 네가 고2 때였을까? 낙엽이 많은 가을에 쓰레기 줍기 봉사를 하다가 산책로에 있는 정자에 누워 가을 하늘을 바라봤던 때가 기억나. 그 순간은 마치 휴전을 약속한 듯 얼마나 평화로웠는지 모른다. 인생에 중요하지 않은 시기가 어디 있겠나만 너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라면 시기였을 고등학교 시절은 코로나로 사춘기로 대학 입시로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

네가 대학교에 입학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서로에게서 독립하게 됐지. 그 첫걸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했어. 그동안 너를 키우면서 엄마도 어른으로 성장한 것 같아. 물론 아직도 많이 미흡해. 완벽한 엄마가 아니라서 미안하다. 아들에게 화내고 잔소리하고 힘들게 해서 미성숙한 어른의 모습을 너에게 보여줘서 미안해. 엄마의 힘든 마음을 이해해 줘서,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줘서 고마워. 되돌아보면 널 키우면서 엄마는 행복하고 즐거웠던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

군대에서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엄마도 좀 더 어른스러운 모습으로 울지 않고 감정 조절 잘하고 있을게. 아마 네가 제대하는 날은 또 다른 감동을 느낄 수 있겠지? 그날은 어떤 기분일까? 아직 오지 않은 날을 그려보며 기대하고 있을게.

어릴 적 걸음마를 배울 때 엄마의 응원으로 한 발짝씩 내디뎠던 것처럼 엄마는 네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널 진심으로 응원할 거야. 분명 넌 잘할 수 있어. 현우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든 꿈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그날까지 엄마가 항상 믿어줄게. 네가 독립해도 엄마는 언제나 현우의 엄마인걸. 엄마는 현우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많이 사랑한다.



## 아빠는 요리사!

© 여성시대 가족이 보내주신 요리법입니다

### 들깨 순두부 떡국

[재료] 떡국떡 200g, 순두부 1봉지, 들깨가루 50g, 멸치육수 700ml, 표고버섯 2개, 마늘, 참치액젓

- 멸치육수가 끓으면 떡국떡을 넣고 3분 정도 끓여요.
- 순두부와 채 썬 표고버섯과 마늘을 넣고 끓어오르면 들깨가루 넣고 참치액젓으로 간을 합니다.

고기가 들어가지 않아도 맛있어요. 들깨의 목직함 고소함과 순두부의 부드러움이 잘 어우러진 쫄깃한 보양식입니다.

### 감자 미역 떡국

[재료] 감자 1개, 미역, 다진 마늘, 국간장, 떡국떡

아빠들이 간단하게 한 끼 챙겨야 할 때 휘리릭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요리입니다.

- 아이와 둘이 먹는다고 생각하고, 감자 1개를 먹기 좋게 잘라주세요.
- 물을 라면 2개 끓일 만큼 냄비에 붓고, 감자, 불린 미역과 다진 마늘 반 스푼, 국간장 1큰술 넣고 끓입니다.
- 뚜껑 덮고 보글보글 5분 정도 끓이다가 떡국떡을 밥 한 공기 정도 씻어 넣어줍니다. 펄펄 끓으면 드세요.

### 떡국떡 간식 빵튀기

[재료] 떡국떡, 꿀이나 조청

- 떡국떡을 찬물에 충분히 불려주세요.
- 에어프라이어에 넓게 펼쳐서 담아줍니다. 180도에서 10분 정도 구우면 떡국떡 빵튀기가 완성됩니다.
- 달콤한 꿀이나 조청에 찍어 먹거나 떡꼬치 소스에 찍어 먹으면 맛있어요. 충분히 불린 떡국떡을 와플팬에 구워 먹어도 맛있습니.

### 바나나 시리얼 튀김

[재료] 바나나 1개, 튀김가루 2스푼, 시리얼, 물

겉은 바삭하고 안은 촉촉하고 달콤해서 아이들 간식으로 좋아요.

- 바나나 껍질을 벗기고 툭툭툭 잘라서 1cm 두께로 동그랗게 해주세요.

바나나는 몽툰한 버터 칼 같은 걸로 잘라도 잘 잘리니까 아이들에게 하라고 해도 됩니다.

- 시리얼을 비닐 주머니에 넣고 아이들에게 주먹이나 장난감 망치로 부수라고 하세요.
- 튀김가루에 물 넣고 걸쭉한 반죽 만들고, 바나나를 넣어 튀김옷을 입히세요. 튀김옷 입은 바나나를 잘게 부순 시리얼에 굴리세요.
- 시리얼 묻힌 바나나를 에어프라이어에 넣고 180도에서 5~7분 정도 구워주면 끝!

### 바나나 오트밀 빵

[재료] 바나나 1개, 달걀 2개, 호두 등 견과류, 오트밀, 소금

- 바나나 1개를 껍질을 벗겨 손으로 대충 툇툇 잘라주고, 호두는 20g 정도 잘게 다져주세요. 다른 견과류나 건포도 다 좋습니다.
- 믹서기에 달걀 2개를 넣고 바나나 조각과 오트밀 한 컵을 넣고 소금 약간 넣고 믹서기로 곱게 갈아주세요.
- 믹서기에 간 바나나와 오트밀 반죽에 다진 호두나 건포도, 견과류 등을 넣고 골고루 섞어주세요.
- 전자레인지용 그릇에 식용유를 골고루 발라주고 반죽을 부어주세요.
- 그릇에 랍을 씌운 뒤 젓가락으로 구멍을 뚫뚫 뚫어주고, 전자레인지에 넣고 3분 돌리세요. 젓가락으로 찢어봐서 반죽이 묻어나오지 않으면 다 익은 겁니다.
- 꺼내서 칼로 자르면 옥수수빵 같기도 하고 치즈케이크 같기도 한 부드러운 우면서도 고소한 빵이 나옵니다.

### 바나나맛 푸딩

[재료] 바나나맛 우유, 가루 젤라틴, 아몬드 또는 과일 토피нг, 설탕

- 가루젤라틴 6g을 찬물 15ml에 잘 불려놓아요.
- 냄비에 바나나우유 한 팩(약 200ml)과 설탕 1스푼 넣고 전자레인지에 2분 정도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 거기에 불려둔 젤라틴을 넣고 잘 녹여주세요.
- 그런 다음 용기에 부어 뚜껑 닫은 뒤 냉장실에 2시간 놔두면 찰랑찰랑하게 굳어요. 아몬드 같은 견과류나 과일 올려주면 더 좋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두유나 초코우유로 푸딩을 다양하게 만들어보세요.

### 당근치즈전

[재료] 당근 1개, 달걀 2개, 부침가루 1스푼, 소금, 모짜렐라치즈 50g, 꿀, 케첩 조금

- 당근을 채칼로 얇게 썰어 소금 한 꼬집 넣고 기름에 살짝 볶아요. 볶은 당근은 한 김 식혀주세요.
- 달걀 2개를 풀고 소금으로 살짝 간 하고, 부침가루도 넣어 반죽을 만들어요.
- 반죽에다가 볶아서 식혀둔 당근을 넣어 섞어요.
- 팬에 부침개 부치듯 넓게 펼쳐서 부쳐요. 그리고 한 번 뒤집은 후 위에 모짜렐라치즈를 골고루 펼쳐요. 아랫면이 살짝 익으면 펼쳐진 당근전을 반으로 접어요.
- 치즈가 녹을 정도만 열을 가한 뒤 큰 접시에 담고 위에 달달한 꿀이나 새콤한 케첩을 뿌려 주세요. 색도 예쁘고 맛도 좋아요.



## 마음으로 하는 이야기

양희은 | 여성시대 진행자



나는 인별그램에 마음이 움직인 일들만 기록하는 편이다. 연말 연시 식구들이 모여 왁자지껄했고, 엄마는 증손자를 보며 좋아 하셨는데 그날 유난히 오래도록 거실에 앉아 두루 얘기 나누며 웃으셨다.

저녁이 되어 식구들이 다 돌아가고, 그간 틈했던 기록이 섭섭해 엄마의 장식장 안을 찍어서 젊은 날의 엄마 사진을 올렸더니 만, 사람들이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글을 계속 올려 그게 아니고 아직 살아 계시다고 답을 했다.

엄마께서 지난 12월 들어 그렇게 털신 타령을 하시기에 희경이와 내가 좋은 걸로 각각 한 켄레씩 사드렸지만, 디자인은 좋은데 불이 좁고 발등이 낮아 힘들다 하셨다. 그 옛날 말표 검정 털신을 대령하니 “아유~ 쑥 들어가는 게 너무 좋다” 하셨고 그때가 수요일 오후였다.

저녁으로 어묵탕을 끓였는데 아주 맛나게 끓여져서 한 대접 드릴까 하다가 잘 자리에 늦게 잡쉬봤자 좋지 않고, 그냥 내일 잡

수실 거라 생각해서 아무 말도 안 했다. 그리고 그날 밤 11시 45분경, 집 전화기가 울려 받으니 아래층에 계신 엄마의 괴로워하는 음성이 들렸다. 깜짝 놀라 남편과 1층으로 달려가 보니 엄마는 괴로움을 이미 다 지낸 듯 보였다.

그러나 맥박은 남아 있었는데 119를 타고 응급실로 가는 중간에 심정지가 왔다. 그날 밤 11시 45분부터 세 딸에게 차례로 전화를 건 기록이 남은 건 장례 치른 후 엄마의 전화기를 만지다 알게 되었다. 응급실의 심폐소생술이 소용없이 떠나셨고 구급차에 남편이 타는 바람에(구급차에는 한 사람만 탈 수 있다) 나는 마지막 말도 못 했다.

아무 생각도 없이 멍한 가운데 주변에서 이리저리 의견을 내고 큰 도움을 주셔서 사망진단서 발급 후 운구차에 실어 집에서 가까운 장례식장으로 모셨다.

덤덤한 가운데 순서대로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빨래하고 엄마 방에 들어선 순간 뱃속 저 밑에서부터 울음이 터져 아이처럼 엉엉 울고 말았다.

희경이네 세 식구는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다.

**희경:** 엄마 떠나신 지 5주째, 모두 각자 엄마를 그리워하며 지내고 있다. 오래오래 이렇게 함께 살았던 언니가 제일 허전해하

고, 요일 정해 화요일마다 왔던 제부가 장모님과과의 수다를 그리워한다.

**큰손자:** 할머니, 거긴 어때? 여기보다 훨씬 편하지? 난 그곳에서 할머니가 정말 행복했으면 해. 이모들도 엄마도 내가 정말 힘껏 해볼게. 내가 가진 모든 게 할머니한테 나왔다고 당당히 외칠게. 그러니까 편하게 계셔. 나에게 많은 거 주고 가셨으니, 주신 것들 내가 멋지게 꽃피우고 당당하게 만나러 갈게. 사랑해 고마워. 보고 싶을 거야.

**둘째 손자:** 이제 할머니 손을 만지작거리지 못해 슬프고, 할머니가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못 봐서 슬프고, 내 얼굴 쓰다듬어주는 손길이 없어서 슬퍼요. 더 자주 못 찾아뵙고 시간 많이 못 보내서 죄송해요. 저한테 해주신 모든 것들 잊지 않고 열심히 살아갈게요. 이모들이랑 엄마도 내가 챙겨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이야기보따리 잔뜩 들고 갈 테니까 그때는 보청기 없이 내 얘기 많이 들어줘요. 보고 싶을 거야. 사랑해요.

나는 지금도 불현듯 문득문득 엄마께 전화해야지 하다가 멈춘다. 떠나시고 난 후 마음으로 그렇게 많은 이야길 한다. 그리고 일찍 엄마를 여윈 이들을 존경하게 되었다. 기댈 데 없이 무슨 힘으로 살아냈는지...





## 부자 여행

김일중 | 여성시대 진행자



나에게는 아들 둘이 있다. 올해 중학교 3학년이 되는 첫째와 중학교 1학년으로 입학하는 둘째. 아직 사춘기의 고비가 남아있긴 하지만, 그야말로 다 키웠다는 생각이 든다.

이 두 학생에게 겨울방학 동안 짧게라도 다녀올 여행지에 대한 선택권을 넘겼다. 각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렸다. 형제의 의견을 조율하는 건 부모의 역할인데 때마침 아내가 명쾌한 해결법을 내놨다. 엄마 아빠 팀을 나눠 아들 한 명씩 각자가 원하는 곳으로 다녀오기로. 그리하여 난 둘째 아들과 팀을 이뤄 둘째가 원하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부자지간의 여행. 아내와 장남 없이...

내가 어렸을 적 나의 아버지는 남매 중 아들인 나를 데리고 자주 여행을 가셨다. 아버지와 나, 단둘이 아닌 아버지의 친구분들도 함께했다. 여행의 목적지는 주로 산이었다. 당시를 떠올리면 등산이 힘들어 숨을 헐떡이며 울먹거린 경우가 많았다. 실제 사진으로도 그 추억은 증명된다.

주말 아침이면 이른 시간에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목욕탕엘 갔다. 후끈한 습기에 숨쉬기는 힘들고 뜨거운 탕에 때를 불리기 위해 의무적으로 있어야 하는 10분은 너무 고통스러웠다. 그 이후엔 살갓이 시뻘게지도록 때수건으로 구석구석 때를 미는 아버지의 손길이 기다리고 있었다.

등산의 오르막이나 때수건의 까칠함에 울먹이던 그 시절의 나보다 조금 더 성숙한 둘째 아들과 여행길에 올랐다. 아들은 유치원 때나 초등학교 1, 2학년 때처럼 옆에서 재잘거리거나 다양한 반응을 보이진 않았지만, 반대로 제법 멀고 힘든 보행 길도 투정 한 번 부리지 않고 잘 헤쳐 나갔다. 오히려 택시를 타자고 조르는 아빠를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 타이르는 녀석. 직접 정한 여행길이라 그런지 목적지마다 마치 가이드처럼 그곳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녀석. 대견하다.

어렸을 적 나에게 우리 아버지는 그야말로 슈퍼맨이었다. 힘든 오르막길도 문제없이 오르시고, 열탕 속에서도 끄떡없으셨으며 때를 밀 때도 힘이 장사였다. 이번 여행 동안 둘째 아들에게 난 어떤 아빠였을까. 난 어떤 아빠이고 싶을까. 2박 3일의 짧은 여행은 끝났지만 여운이 길다.



IBK기업은행

# 로망이라는 이름의 카드

준비된 자만이 정상에 오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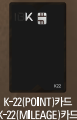
마치 K카드처럼

프리미엄한 당신이니까

기대 그 이상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프리미엄한 삶을 위한  
IBK카드 K카드 출시



※연회비: 국내전용(BC) 21만 9천원 (가족회원 6만 9천원), 해외겸용(MASTER) 22만원 (가족회원 7만원) ※여신금융협회 심의필제2023-C2B-05553호(2023.05.26) 제2023-2312호(2023.05.11) 유효기간(2024.05.10) · 자세한 문의는 거래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BK기업은행은 금품·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위반사실이 내게서 필요할 경우 신고 해주십시오. ☎1522-737490, E-MAIL: IBKETHICS@IBK.CO.KR ※연이자율: 회원별, 이용상품별 약정금리 + 최대 3%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단, 연체발생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일시불거래 연체시: 거래발생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우이자할부금리. 무이자 할부 거래 연체시: 거래발생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우이자할부금리. 그 외의 경우: 약정금리는 상법상상사법정이율과 상호 금융가계자금 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 적용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금융기관 대중평균대출금리(신규대출기준) ※상환 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하락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원리금(또는 대출금, 납부대금 등)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절한 경우 (연체금 보유, 개인신용평점등)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IBK기업은행

# 기업은행의 변화는 당신이 중심.

어려울 때일수록 더 반가운 곳

은행은 그런 곳이어야 하니까

금융생활의 더 큰 만족을 위해

기업은행이 작은 것부터 바꿔 나가겠습니다



은행권 최초 시니어·금융취약계층  
**( 개인 수신/카드 수수료 0원 )**  
이체·자동이체수수료, 자동화기기수수료, 카드재발급수수료, OTP발급수수료 등